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65호 【루계 제23117호】 주체99(2010)년 6월 14일 (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로씨야에서 출판, 발행식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를 로씨야 하바롭스까야 크라예바야 찌뽀그라피야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7일 출판사에서 진행되였다.

출판사사장은 발행식에서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로작을 출판한것은 출판사일군들과 하바롭스크시민들에게 있어서 영광으로 된다.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선군혁명령도가 있어 조선인민은 오늘의 긴장한 정세속에서도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며 강성대국에로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다.

김정일동지의 드센 배짱에 세계는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김정일동지를 모신 조선인민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로씨야인민은 조선인민의 정의로운 투쟁에 련대성을 보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인도네시아, 캄보쟈신문의 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와 캄보쟈신문이 기념글을 게재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수아라 까르야》 5일부는 《조선로동당의 날, 6월 19일을 기념하는 조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조선로동당의 지도리념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당건설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갈 의지를 밝히시였다.

그이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이 시대와 혁명의 요구, 인민대중의 리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새롭고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시였으며 그를 자주시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선포하신 김정일각하께서는 당안에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하시고 모든 사업을 주석의 구상과 의도, 방식대로 해나가며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이끄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서거하시였을 때 그이께서 제시하신 조선로동당의 기본구호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였다.

김정일각하께서 진두에 서계심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은 력사의 온갖 풍파와 시련속에서 추호도 흔들리지 않는 자주적대가 강한 당으로, 단 한번의 로선상착오나 실수도 없이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한길로 줄기차게 나아가는 강위력한 당으로 될수 있었다.

캄보쟈신문 《크마애 아마따》 7일부는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조선의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40여성상 당을 김일성주석의 당으로, 주석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당으로 건설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당이라고 천명하시고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에서 이것을 일관하게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당안에 사상의 유일성을 확고히 실현하여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수령이 이룩한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발전시켜나가는 당으로 건설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수령을 중심으로,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당의 통일단결을 사상의지적, 도덕의리적인것으로 되게 하시고 대를 이어 계승되도록 커다란 로고를 바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령도체계가 확고히 선당으로 건설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안에 수령의 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수령의 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사 설

일군들은 대고조의 앞장에서 기발을 들고 나아가자

지금 온 나라에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 날마다 혁신적인 소식들이 전해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혁명적대고조에서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고 우리의 전진속도가 빨라질수록 일군들은 자기 단위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돌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대중의 앞장에 서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는 선봉투사가 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의 조직자, 지휘성원이며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불러일으키는 교양자, 선도자이다. 일군들의 헌신적인 역할에 의하여 당정책관철을 위한 지름길이 열리고 대중의 정신력이 세차게 분출되게 된다.

오늘의 대고조진군에서 이룩되는 혁신적성과들마다에는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완강하게 돌진해나가는 우리 일군들의 노력이 깃들어있다. 우리 식의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한 성강의 기적과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을 새롭게 일떠세우고 주체솜이 폭포치며 쏟아지는 온 나라의 대경사를 비롯하여 대고조시대를 빛내이는 자랑찬 성과들은 일군들의 혁명적인 투쟁기풍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일군들은 자신들의 노력에 의하여 대고조의 성패가 좌우된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고 더욱 분발하여 투쟁해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자신들을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내세워준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대오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전진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오늘의 총공세에서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최대로 높여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인민들에게 천만가지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려는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자면 모든 일군들이 자신들에 대한 당의 믿음을 생명처럼 귀중히 간직하고 대고조진군에서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지금이야말로 일군들이 자신의 당성을 검증받는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 일군들의 심장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높은 실적으로 보답하려는 철석의 신념과 당이 맡겨준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고서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결사의 각오, 누가 보건말건 헌신적투쟁으로 나라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뿌리가 되고 인민의 사랑을 받는 투사가 될 일념으로 뜨겁게 맥박쳐야 한다.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는데 한몫 단단히 한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과 같은 쇠소리나는 지휘성원들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일군들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처럼 위대한 장군님과 리상도 각오도 걸음도 같이하는 강행군동지,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는 완강한 실천가, 집단에 없어서는 안될 쟁쟁한 실력가, 대중의 심장에 남는 일군이 되여야 한다.

일군들은 언제나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진취적인 사고방식과 사업태도를 지니고 최첨단을 향하여 새것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창조의 능수가 되여야 한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의 승리는 모든 전선에서의 거대한 비약과 혁신, 과감한 최첨단돌파로 이룩된다. 대고조시대 일군들의 사고방식과 사업태도는 세계를 내다보며 언제나 새롭고 발전적인것을 창조해나가는 진취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

일군들이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부단히 새것을 창조해나갈 때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것은 CNC기술의 명맥을 틀어쥐기 위한 투쟁에서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우리 일군들은 자신들부터 현대과학기술에 정통한 능력있는 일군으로 준비하며 낡은 사고관점과 일본새를 대담하게 버리고 모든 문제를 새로운 안목과 높이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과학기술인재들을 아끼고 내세워주며 그들이 창조한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생산실천에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또한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단위들의 투쟁경험을 따라배우기 위하여 노력하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현 실태와 세계발전추세를 환히 꿰들고 남들보다 더 앞서나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부닥치는 난관을 통이 큰 작전으로 완강하게 뚫고나가는 담이 크고 전개력이 있는 불굴의 투사가 되여야 한다.

오늘의 대고조전투는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야 할 총공격전이다. 거창한 창조와 변혁으로 격동하는 대고조시대의 일군들이라면, 백두의 기상과 담력을 지닌 우리 당의 품속에서 혁명을 배운 지휘성원들이라면 마땅히 난관극복의 정신과 완강한 공격기질, 대담하고 통이 큰 일본새를 지녀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과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세상을 들었다놓는 경이적인 성과들을 이룩할 배심을 가지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야 한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일군들처럼 강성대국의 대문을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먼저 열어제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혁신적인 안목과 주도세밀한 작전, 과감한 실천력으로 일을 본때있게 내밀어야 한다. 경공업, 농업부문과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들의 일군들은 생산전반을 추켜세워나갈수 있는 중심고리를 찾아 힘을 집중하며 조건과 환경이 불리하고 방대한 과업이 나설수록 든든한 배짱과 담력, 자신심을 가지고 용감하게 돌진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혁명적대고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투쟁의 기수, 돌격의 나팔수가 되여야 한다.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일군들이 대오의 앞장에서 앞채를 메고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모든 일군들은 언제나 대중속에 몸을 깊숙이 잠그고 제기된 문제를 푸는데 어깨를 들이밀고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헌신적인 투쟁으로 대중을 감화시킬줄 알아야 한다.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들에서 대중과 한가마밥을 먹으며 그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하면서 그들의 심리를 잘 알고 당정책관철에로 민심을 주도할줄 아는 능숙한 정치활동가가 되여야 한다.

인민군대지휘관들의 모범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이르는 곳마다에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고있는 인민군대의 위훈속에는 대오의 앞장에서 돌격로를 열어나가는 지휘관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새겨져있다. 우리 일군들은 인민군대지휘관들처럼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대오를 이끌어나가고 대중의 마음과의 사업, 사상과 의지, 감정과의 사업을 심화시켜 그들의 정신력을 활화산처럼 분출시켜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오늘의 대고조진군의 앞장에서 완강히 돌진함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할것이다.

적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오늘의 총공격전에 더욱 박차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주체비료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자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종업원궐기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의 궐기모임이 12일에 진행되였다.

홍인범 평안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안극태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련합기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로동계급에게 보내신 감사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비서 전경선의 보고에 이어 지배인 조경철, 초급당비서 전홍선, 청년동맹1비서 박철진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기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짧은 기간에 위대한 창조물을 일떠세운 남흥로동계급과 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날론대경사가 난데 이어 주체비료가 꽝꽝 쏟아져나오게 된것은 전체 인민들에게 희망과 락관을 안겨주는 또 하나의 온 나라 대경사이라고 하시면서 농촌에 많은 비료를 보내줄수 있게 된데 대해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으며 기업소로동계급에게 감사를 주신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후방시설들을 돌아보시며 로동자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농업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기업소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은 나라의 화학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가스화공정에 대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고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더 많은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기업소내 과학자, 기술자들은 발은 자기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관점에서 전반적인 생산공정을 최신과학기술의 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전개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종업원들이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높이 기술혁신안을 널리 도입하여 생산장성에 기여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3페로재처리장과 공업용수침전지공사를 다그치는것과 함께 수지마대를 많이 생산하여 비료를 허실없이 농촌에 보내줄데 대하여 말하였다.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추켜들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로동자합숙과 청춘원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의 관리운영사업을 짜고들며 후방물자들을 더 많이 공급하여 종업원들이 랑만과 희열에 넘쳐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위훈을 떨치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비료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안주발 조선중앙통신】

강성대국《산울림》메아리친다

평안남도에서

《김일성상》계관작품 경희극 《산울림》이 6월 12일 평안남도 안주시에서 첫 공연의 막을 올렸다.

안주극장에서 진행된 공연을 도의 일군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관람하였다.

경희극 《산울림》을 관람하게 된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커다란 기쁨과 격정으로 가슴설레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난관앞에 주저앉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고유한 혁명정신이며 투쟁기풍입니다.》

창조와 변혁으로 들끓던 위대한 천리마시대를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여주는 경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울수 있다는 확신을 안겨주는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경희극 《산울림》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도안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숨결을 같이하면서 현지에 도착한 즉시 무대장치를 비롯한 공연준비를 갖추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였다. 출연자들은 천리마시대 인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숭고한 리상, 불굴의 투쟁모습을 명랑한 웃음과 재치있는 해학으로 잘 보여줌으로써 관람자들로 하여금 《천리마시대 사람들과 나》라는 량심의 물음에 자신을 세워놓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한몸 다 바칠수 있게 공연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평안남도에서의 《산울림》공연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기세를 더욱 고조시켜주었다.

공연을 본 관람자들은 한결같이 경희극 《산울림》이야말로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들을 강성대국건설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귀중한 교본으로 된다고 하면서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공연을 통하여 관람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을 따라 사회주의를 일떠세운 전세대들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이 땅우에 기어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워 후대들에게 물려줄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공연은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전세대 인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도덕풍모, 불굴의 정신력을 따라배워 계속혁신, 계속전진할때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여 10월의 광장에 떳떳이 들어설수 있다는것을 깊이 새겨주었다. 경희극 《산울림》공연은 계속된다.

특파기자 리혁철

물길굴건설에서 련일 혁신

어랑천2호발전소건설장에서

어랑천2호발전소건설장에 대고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에 무한히 고무된 발전소건설자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승리의 신심드높이 물길굴건설에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5배의 공사실적을 올리면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기문제를 풀자면 지금 있는 발전소들을 만부하로 돌리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함경북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발전소건설지휘부의 일군들은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건설자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고있다. 또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물길굴건설을 하루빨리 끝낼수 있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합리화안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고있다.

발전소건설자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적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물길굴건설을 질적으로 완공하기 위해 총돌격전을 벌려나가고있다.

명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대대의 전투원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이 대대에서는 지난해에 맡은 원형콩크리트피복을 전부 끝낸 성과와 경험을 살려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물길굴건설을 앞당겨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대대에서는 물길굴확장과 원형콩크리트피복을 전부 끝내고 다른 단위의 공사를 적극 도와주면서 전반적물길굴건설의 완공을 앞당기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대대에서는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고 많은 량의 세멘트와 철근을 절약하면서도 물길굴확장과 콩크리트치기속도를 높일수 있는 새로운 갱건설방법을 받아들여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또한 확장굴진과 콩크리트치기가 여러곳에서 진행되는 조건에 맞게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작업공정들간의 련계를 긴밀히 하여 갱건설의 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길주군대대와 경성군대대, 무산광업건설사업소대대의 전투원들은 《희천속도》창조자들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본받아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이들은 물길굴확장과 원형콩크리트피복을 끝낸데 이어 물길굴바닥콩크리트치기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내밀고있다. 이곳 전투원들은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공사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하여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가고있다.

경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대대와 부령합금철공장대대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물길굴확장과 원형콩크리트피복공사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이 대대들에서는 로력과 자재를 극력 절약하면서도 공사의 질을 높일수 있는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길주절연물광산대대와 청진시대대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도 공사량이 방대한데 맞게 설비들의 기술관리와 막장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맡은 공사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하고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대대와 온성지구탄광련합기업소대대에서는 압축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보수정비를 깐지게 하여 그 가동률을 높이면서 치렬한 전투를 벌려 맡은 물길굴을 관통하였다. 그리하여 전반적물길굴의 총관통을 보장하는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켰다.

도청년돌격대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이 발전소건설에서 선군시대 청년전위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청진시 신암구역중대와 수남구역중대, 라남구역중대와 연사군중대, 경흥군중대의 청년돌격대원들은 물길굴건설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동발나무생산을 본때있게 다그치고있다. 청년돌격대원들은 원쑤격멸의 기상을 안고 떨쳐나 여러가지 운반수단들을 리용하여 베여놓은 통나무들을 제때에 실어나르고있다.

특파기자 리성호

적들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짓뭉개버릴 투지로 기관차수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평양기관차대에서— 신충혁 찍음

정 론

6.15격류여 통일에로 노도치라

어느덧 10년이 되였다.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공동선언으로 21세기 조국통일의 새 장을 펼치며 6.15시대가 닻을 올린 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열번째의 년륜을 아로새기고있다.

분렬의 원한 서린 삼천리강토에 화해와 단합의 봄빛을 뿌려주고 민족의 통일열기를 한껏 북돋아준 6.15시대.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감동의 화폭들도 많았고 세상을 들었다놓는 경이적인 사변들을 련이어 펼치며 통일의 열매를 주렁지운 6.15시대.

오늘 반통일세력의 발악적책동으로 북남대결이 첨예화되고 전쟁위험이 짙어갈수록 《우리 민족끼리》기치아래 단합의 함성 높여온 그 나날들은 한없이 귀중한 추억으로 겨레의 가슴에 파도쳐오고있다.

자주통일로 향한 민족사의 흐름을 힘있게 추동한 6.15시대의 생생한 목격자, 체험자인 우리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으며 무엇을 얻었는가.

오직 한길, 북남수뇌분들이 온 겨레의 뜻을 담아 발표한 6.15공동선언의 길을 따라 나아갈 때 민족이 흥하고 통일이 오며 이 궤도에서 탈선할 때 불행과 참화만이 닥쳐오고 통일은 아득히 멀어진다.

이것이 상봉과 기쁨, 웃음과 희망, 기대와 좌절, 저주와 분노, 파탄과 결렬로 이어져온 지난 10년이 내린 력사의 결론이다.

1

《력사를 뒤바꾸어놓은 기적》, 《세기적인 충격》!

이것은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평양상봉의 파격적인 사변을 목격하며 세계가 터뜨린 탄성이다.

위대한 력사적사변은 평범한 날에 창조된다. 그러나 그것을 체험하는것은 누구에게나 차례지는 행운이 아니다.

세기적인 위인을 모신 시대는 놀라운 사변으로 충만된 시대이거니 성스럽고 위대한 그 력사의 생생한 증견자로, 동시대인으로 산다는것은 우리 세대의 더없는 행운이며 영광이다.

민족사적사변이 어떻게 마련되는가를 평양상봉의 나날처럼 온 겨레가 격동과 흥분속에 체험한적은 일찌기 없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평양을 찾아오는 남측 당국자를 맞아주시려 몸소 비행장에 나오신 순간 력사의 격파가 일어번지고 금시 세상이 달라졌다.

우리도 놀랐고 세계가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온 남녘땅이 폭풍같은 환성을 터쳐올렸다.

《화창한 날씨속에 빨간주단이 깔려있는 평양비행장의 모습과 함께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직접 영접을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텔레비죤을 지켜보던 모든 이들은 전률을 느껴야 했다. 두 수뇌분들의 력사적인 만남은 수십년을 기다려왔던 감격의 최절정이였다.》

《나는 마치 고압전류에 순간적으로 감전된듯 한 기분을 느꼈다. 갑자기 머리속이 하얗게 지워지는것 같았다. 멍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아마 이때의 충격은 평생을 가도 지워지지 않을것만 같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남측 당국자와 함께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고 신록짙은 평양의 수십리연도에 60여만 시민들의 환영의 꽃물결이 굽이치게 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

회담장에서, 연회장에서 비범한 예지와 통이 큰 결단, 호방한 성격과 유쾌한 유모아로 좌중의 심금을 틀어잡으시며 환희와 충격의 대열풍을 일으키신 세기의 위인.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을 마련해주신것은 평양상봉의 력사적의를 최고의 높이에서 빛내여준 특기할 사변이였다.

불과 55시간동안에 민족분렬 55년동안 이룰수 없었던 통일의 리정표를 높이 세워주시고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합의되였음을 알린다고 장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남측 당국자의 손을 잡고 높이 쳐드시던 장군님의 모습에 《조국통일만세!》의 웨침이 삼천리에 울려퍼질 감격의 그날이 비껴있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이 김대중대통령과 엮어낸 〈세기적상봉극〉은 질곡과 비탄의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일대 사변이였다.

그리고 7천만겨레에게는 상상을 뛰여넘어 질풍노도처럼 몰아닥치는 평양발 뉴스의 홍수속에서 모두의 가슴깊이 응어리졌던 한의 올을 풀어내는 감동적인 사변이였다.》

《〈**김정일**핵폭풍〉은 지난 55년간 우리 사회를 떠받쳐온 기존의 인식체계를 일거에 초토화시켰다.》

남조선언론들이 이렇게 환호한것처럼 정녕 력사적인 6월 평양상봉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이 세상을 환하게 하고 온 겨레에게 통일의 환희와 희망을 폭발적으로 터쳐준 민족의 대경사였다.

막혔던 물목이 터지듯 천지개벽과도 같은 놀라운 사변들이 련이어 펼쳐졌다.

력사가 달라졌다.

불신과 대결로 얼어든 겨레의 가슴을 녹이며 화해와 단합의 열풍이 휘몰아쳤다.

분계선이 터져나갔다. 굳게 닫겼던 하늘길, 바다길, 땅길이 열리고 비무장지대의 동서에서 지뢰밭이 해체되고 동강났던 북과 남의 철도와 도로가 련결되여 막혔던 피가 통하고 고였던 정과 열이 흐르기 시작했다.

백두로부터 한나까지 통일의 환희가 굽이쳐갔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하에서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이질화》되여있는 북과 남이 《동질성》을 회복하려면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고 떠벌이던 남조선의 반통일대결론자들의 궤변이 6.15의 거센 파도에 삼키웠다.

평양에서 열린 통일행사에 남녘의 청년학생대표 한명이 참가해도 세상이 들썩하던 시기는 아득한 옛일인가, 평양과 서울에서, 금강산에서 6.15와 8.15를 비롯한 주요기념일마다 북과 남, 해외의 수백명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민족의 통일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배길을 통한 금강산관광길이 륙로를 통한 관광길로 넓혀지고 통일국가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시에 북과 남이 함께 하는 공업지구가 건설되여 경제협력의 동음을 울렸다.

통일의 마치소리 힘있게 울려가는 긍지를 안고 북과 남의 로동자들이 뜨겁게 얼싸안을 때 농민들은 통일된 새땅에서 밭갈이할 꿈을 농악무에 담아 펼쳤다. 통일조국의 미래를 가꾸어갈 청년학생들의 희망은 얼마나 불타올랐고 교원, 학자, 언론인, 종교인들을 비롯한 각 계층별 통일대회들과 상봉모임들은 또 얼마나 성황리에 진행되여왔던가.

평양의 아름다운 처녀들이 부산과 대구에서 맵시있고 황홀한 응원모습을 펼치며 《우리는—》하고 웨치는 부름에 남녘의 겨레들이 《하나다!》라고 화답할 때, 평양의 《아리랑열풍》에 휩싸인 남녘동포들의 가슴이 민족의 긍지로 부풀어오를 때 7천만의 심장에 높뛴것은 무엇이였던가.

백두에서 줄기내린 이 땅도 하나, 피줄도, 언어도, 문화도 하나, 우리 민족은 갈라져살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임을 온넋으로 절감한 감격과 희열이였다.

력사가 바로섰다.

6.15열풍속에 불신과 대결로부터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된 북남관계는 우리 민족이 누구와 손잡고 누구를 배척하여야 하는가는 물음에 의심할 여지없는 명백한 대답을 주었다.

겨레의 가슴속에 민족우선, 민족중시, 우리 민족제일의 자주정신이 깊이 뿌리내리고 동족대결이 아닌 민족공조가 겨레의 생존과 투쟁방식으로 자리잡게 되였다.

남조선에서 반미자주와 련북통일이 대세로 되고 전체 조선민족 대 미국이라는 대결구도가 형성된것은 나라의 통일을 민족주체적력량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자주통일의 궤도를 놓은 극적사변이였다.

력사가 전진하였다.

올것이 오고 이루어질것이 이루어졌다.

6.15시대의 통일운동은 당국과 민간이 따로 없고 사상과 정견, 당파와 소속의 차이를 뛰여넘어 온 민족이 참가하는 거족적운동으로 급속히 확대발전되였다.

북남대화가 체면주의와 말싸움이라는 고질적병폐를 털어버리고 통일지향적인 대화로, 민족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결실있는 대화로 바뀌여 겨레의 박수갈채를 모았다.

내외의 관심과 기대속에 21차나 줄기차게 이어진 상급회담과 10여차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를 비롯하여 수백차에 달하는 회담과 접촉, 교류, 공동행사들, 더우기 그 모든 회합들에서 민족의 통일지향을 반영한 좋은 합의들을 이루어냈으니 누구인들 6.15시대의 혁혁한 성과앞에 스스로도 놀라지 않을수 있었으랴.

력사적인 6.15선언은 10.4선언과 이어져 더 큰 메아리로 세상을 진감시켰으며 통일의 대하는 보다 넓은 폭을 펼치며 노도쳤다.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고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갈 의지를 뚜렷이 한 10.4선언이 탄생함으로써 6.15시대는 되돌려세울수 없는 민족사의 기본흐름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였다.

참으로 6.15시대의 지난 10년은 민족이 외세를 이기고 애국이 매국을 이기고 통일이 분렬을 이긴 긍지높은 년대기, 《우리 민족끼리》리념아래 서로의 마음들에 맺힌 오랜 응어리들을 후련하게 풀어낸 격동과 환희의 나날이였다.

평양의 《아리랑》공연관람길에서 통일동이를 낳은 남녘의 한 녀성이 북받치는 감격속에 평양산원창가에서 읊은 시구절이 있다.

너의 고향은 평양이란다
6.15축복받은
서울의 평양아이야
무엇보다 6.15를 닮거라
불가능이 없단다
…

이것은 6.15의 혜택속에 조국통일의 밝은 앞날을 그려보는 남녘겨레의 진정이였고 확신이였다.

지금 남조선의 친미보수패당은 함선침몰사건과 같은 특대형모략극까지 날조하면서 6.15시대를 결딴내려고 최후발악하고있다.

그러나 서로 오고가고 만나 합심하면서 통일의 진미를 한껏 맛본 지난 10년세월의 잊을수 없는 추억과 더불어 겨레의 가슴속에 억세게 뿌리내린 조국통일에 대한 신념을 어떻게 흔들어놓을수 있단말인가.

미제와 역적패당이 발악하면 할수록 6.15시대에 대한 그리움과 애착만을 더욱 강렬히 불태워줄뿐이며 6.15북남공동선언의 력사적의의를 보다 뚜렷이 부각시킬뿐이다.

2

위인이 시대를 낳고 위인을 따라 력사는 전진한다.

6.15시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새롭게 열어주신 자주통일의 시대,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넋이 근본정신으로 불타오르고 통일격류로 노도치는 시대이다.

바로 여기에 시련은 있어도 절망이 있을수 없는 6.15시대의 랑만이 있고 도전은 있어도 좌절이 있을수 없는 6.15시대의 불가항력성이 있다.

2000년 3월.

백두산에서는 장엄한 력사의 태동을 알리며 눈보라가 휘몰아치고있었다.

빨찌산의 아들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을 찾으신것이다.

눈보라가 날리는 백두산정에서 우리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피어린 항일대전을 돌이켜보고 온 나라에 떠받들려있는 백두산의 장엄한 모습을 보느라면 통이 큰 작전과 구상이 떠오르고 그에 대한 신심과 용기도 백배해진다고 말씀하신 위대한 장군님,

이 나라 조종의 산, 백두성산에 거연히 서시여 조국의 남단 제주도에 이르기까지의 삼천리강산을 한눈에 굽어보시는 그이의 안광에서는 섬광이 번쩍이였고 대세를 휘여잡아 력사와 시대흐름의 물줄기를 바로잡아놓으실 신념과 의지가 뿜어져나왔다.

바야흐로 새 세기, 21세기가 도래하고있었다.

20세기의 민족분렬사가 21세기에 와서도 지속되게 하여서는 안되였다.

21세기의 **김일성**, **김정일**조선은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강성대국으로 세계에 우뚝 솟아올라야 했다.

그이께서는 백두산과 같이 크고 넓은 도량으로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여 분렬과 대결의 북남관계를 극적으로 돌려세우고 조국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실 대결단, 대용단을 내리시였다.

아, 평양상봉!

조국통일의 분수령을 이룰 이 력사의 순간을 마련하시려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울이신 심혈, 바치신 로고는 얼마나 컸던가.

우리는 잊지 못한다.

조국통일과 관련한 중대문건에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시여 이 땅에서 가장 절박한 과업, 최고의 애국이 무엇인가를 뼈에 사무치게 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너무도 크나큰 상실의 아픔과 절통한 심정을 억제하지 못하시며

《김 일 성
1994.7.7.》

이라는 불멸의 친필을 보고 또 보실 때, 판문점을 찾으시여 그 친필이 새겨진 비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실 때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 끓어오른것은 무엇이였던가.

불타는 통일의지였다.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하시려는 결사의 맹세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을 생각하시며 한자, 분렬된 강토를 안아보시며 또 한자… 이렇게 집필하신 불후의 통일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서 맥박치는것도 그 신념, 그 결단이였다.

민족의 앞길에는 조국통일3대헌장이 통일의 홰불로 타올랐고 단결의 기치로 나붓기였다.

위대한 선군정치로 력사의 반동들을 쥐락펴락하시며 조국통일에 유리한 정세를 주동적으로 마련하신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새 세기 통일의 봄우뢰를 삼천리가 진동하도록 울려주시려 백두산을 찾으신것이였다.

참으로 그것은 간고한 항일대전의 나날 어버이수령님께서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앙양을 위하여 백두산으로 나오신것과 같은 거대한 사변이였다.

조국해방의 려명이 밝아온 백두산에서 조국통일의 려명이 또다시 밝아왔다.

그 려명은 4.8북남합의서의 발표로 어둠을 밀어내고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장쾌한 해돋이를 펼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북남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하고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일관된 민족단합의 강령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입니다.》

지구를 뒤흔들어놓은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공동선언의 뢰성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투철한 민족자주사상과 민족대단결로선의 위대한 승리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뜻,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통일애국의 사상과 로선을 철학적기초로, 기본핵으로 하여 작성된 6.15공동선언이기에 과학성과 론리성이 그리도 당당하고 발표되자마자 온 민족의 절대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던것이다.

6.15공동선언을 력사적인 평양상봉에 대한 공보용문건이 아니라 리행하는 선언, 통일운동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게 하신데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공적이 있다.

지난 시기 북과 남사이에 조국통일에 관한 훌륭한 문건들을 채택해놓고도 돌아앉아서는 그것을 줴버린 남측의 행동으로 뜨겁게 부풀며 달아오르던 민족의 희망과 열기가 일시에 사그라진적이 한두번이였던가.

55년만에 이루어진 평양상봉은 결코 서로 만나 악수나 나누고 축배잔이나 찧고 헤여지는 상봉이 아니라 마음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민족앞에 큰 선물을 안겨주는 력사적사변으로 되여야 하였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상봉과 회담들에서 남측 성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힘주어 강조하시고 진지하게 설득시키시고 명백히 확인받으시였다.

지금까지 북남관계는 빈소리뿐이였다, 이제는 빈종이장만 남게 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시기 북과 남사이에는 7.4북남공동성명을 비롯하여 이미 합의한 좋은 문건들이 많다, 문제는 그것을 제대로 리행하지 못하고있는데 있다, 이번에 내놓는 문건은 7천만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미래에 대한 락관을 주는 선언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끼리》를 공동의 리념으로 하여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자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우리 민족끼리》!

불과 여섯글자였다. 그러나 통일의 대백과전서였다.

거기에는 자주도 있고 단결도 있고 평화도 있었다. 통일의 대전제도 있고 대론거도 있고 통일을 위한 힘과 지혜도 다 깃들어있었으며 나아갈 밝은 길도 환히 펼쳐져있었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렬의 지리한 력사속에 동족이면서도 서로 남남처럼 불신하고 대결하며 온갖 불행과 고통을 당해온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보다 동포애의 정이 가슴후덥게, 신선하게 안겨드는 조선말은 없으며 그보다 더 함축된 언어로 민족자주와 단합을 통속적으로 명쾌하게 담아낸 명구는 없다.

누가 과연 이를 거부할수 있겠는가.

한점의 의문조차 가질래야 가질수 없고 반대할래야 반대할수가 없으며 이에 부담감을 느낀다면 조선사람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것이요, 이를 거부한다면 자신을 사대매국노, 분렬주의자로 인정하는것으로 되는, 오직 쌍수를 들어 환영하지 않을수 없는 《우리 민족끼리》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장 선차적이고 중대한 자주사상, 《우리 민족끼리》를 핵으로 명기한 공동선언을 채택하도록 하심으로써 《세기적악수》로 시작된 6월상봉이 지구에 던진 《평양의 통일핵폭탄》이라는 장쾌한 결실로 최절정에 이르게 하시였다.

북남삼천리는 울며 웃었고 세계는 법석 끓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통이 크고 호탕하고 자상하면서도 정치적지도력이 뛰여난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평범하시면서도 정치가로서는 굉장히 능력있고 비범한 지도자》, 《2000년의 가장 멋진 사변》…

《**김정일**충격》, 《**김정일**열풍》으로 이 땅과 온 세상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6월의 나날 7천만겨레가 가슴속깊이 간직하게 된 통일의 진정한 희망과 확신은 무엇인가.

온넋으로 따르게 되고 심장을 통채로 바치게 되는 **김정일**장군님은 곧 통일이라는 진리였다.

그 희망, 그 확신, 그 투지는 6.15시대의 도도한 진군과 함께 더욱 불타오르고 더욱 굳건해졌다.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자!》**와 같은 구호들을 련이어 제시하여주시며 통일운동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끄시여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전민족의 근본넋으로 뿌리내리도록 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

그이의 손길 잡고가면 넘지 못할 령이 없었고 그이의 발걸음따라 통일의 환희가 미래로 폭풍쳐갔다.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남측 인사들을 따뜻이 접견하여주시고 이렇게 만나니 의사가 소통되여 좋다고, 련애도 자주 만나야 되지 않는가고 하시며 북과 남의 상봉이 더욱 줄기차게 이어지도록 하여주신 이야기며 북남철도련결과 관련한 남측의 제의를 받으시고는 서해선뿐아니라 동해선철도도 련결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는 생동한 비유로 경제협력의 방략들을 깨우쳐주신 이야기.

6.15시대의 갈피에 아로새겨져 오늘도 겨레의 가슴을 후덥게 하는 소중한 추억, 감동의 화폭들은 얼마나 많은가.

선군으로 지켜낸 평화의 푸른 하늘아래 다채로운 통일행사들을 성황리에 펼쳐주시여 자주통일시대의 환희로운 파도가 설레이게 하신 장군님의 은공에 무슨 말로 감사의 인사드리랴.

민족의 운명을 한품에 안는 포옹력과 도량, 천품으로 타고난 민족에 대한 사랑과 인덕, 민족의 전도를 위함이라면 중대결단도 서슴없이 내리는 담력과 용기, 막아서는 온갖 장애를 박차고 통일의 기관차를 힘차게 몰아가는 추진력…

민족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령도자가 지닐수 있는 모든 천품과 자질과 능력을 한몸에 다 지니신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조국통일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조선의 하늘이 낸 민족의 태양이시다.

10월 평양상봉의 나날 뜻깊은 연회석상에서 《남북간에 평화가 잘되고 경제도 잘되려면 빠뜨릴수 없는 일이 하나있다. 그것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건강하시고 장수하시는것이다.》라는 진정이 터져나온것은 시대의 요청과 민족의 절절한 소망을 대변한것이였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의 발표와 더불어 화해와 단합의 물결이 반통일방파제를 물먹은 흙담처럼 무너뜨리며 굽이쳐흐른 《우리 민족끼리》 10년의 화폭들은 뚜렷이 확증하였다.

절세의 위인에 의하여 위대한 력사가 창조되며 민족의 운명은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것을.

민족의 어버이이시고 걸출한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계시여 통일의 희망은 현실이고 통일의 신념은 승리이라는것을.

3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자!

이것이 북남공동선언발표 10돐을 맞으며 더욱 강렬히 불타오르는 온 겨레의 지향이고 확고한 의지이다.

뒤를 돌아보고 앞을 내다볼수록 더없이 귀중한 《우리 민족끼리》!

민족의 운명을 안은 이 기치로 하여 북과 남은 마침내 조국통일운동의 본태를 찾고 민족주체를 확립하게 되였으며 민족의 미래를 안은 6.15공동선언이 있어 기나긴 세월 합의와 파탄, 재개와 결렬의 악순환을 거듭해온 북남관계가 새로운 궤도우에 올라서고 우리 겨레는 통일해돋이를 신심에 넘쳐 바라보게 되지 않았던가.

6.15의 리정표를 따르는 길밖에 이 땅에 다른 길은 없다.

우리 겨레의 통일을 위하여,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민족의 밝은 앞날을 위하여 6.15기치보다 더 좋은 표대는 없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보다 더 위력한 무기는 없다.

그 어떤 추상적인 론리도 아니고 그 무슨 《폐쇄》적, 《배타》적주장도 아니며 그 누구의 일방적인 주견도 아니다.

민족화합의 뜨거운 열풍속에 북과 남의 하늘, 땅, 바다길을 활짝 열어놓고 서로 오가며 함께 어깨겯고 통일노래를 부르고 서로 손잡고 경제협력의 동음을 울리며 민족대단결의 성공탑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던 화기넘친 10년세월이 웅변하여주고있다.

동족대결의 찬바람속에 북남사이의 모든 길들이 다시금 막혀버리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가 차단되고 전쟁의 검은 구름이 시시각각 밀려오는 오늘의 기막힌 현실이 6.15시대의 소중함을 반증하여주고있다.

화창한 봄과 엄혹한 겨울, 눈부신 광명과 칠칠암흑처럼 극적으로 대조되는 두 시기앞에 애국과 매국, 통일과 분렬, 진실과 허위가 대쪽처럼 갈라지고있다.

그렇게도 희열과 랑만에 넘쳤던 6.15시대의 환희가 삽시에 찬서리를 맞게 된것은 훌륭한 통일방략이 없어서도 아니고 겨레의 통일열망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6.15시대의 흐름에 악랄히 도전해나선 미제와 남조선괴뢰패당때문이다.

《정권》의 자리에 들어앉자마자 6.15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모독하면서 민족공동의 선언들에 대하여 《합의문이 아니라 선언문이여서 리행할 의무가 없다.》고 줴쳐댄 역적패당.

《6.15식 통일은 절대로 안된다.》며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배타적민족주의》로 매도하고 경제협력사업은 《퍼주기》로 비난하며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은 극악한 반통일대결광신자들.

6.15공동선언이 나온 이후 지난 10년간 정말 힘들었다느니, 지금은 《회춘》한 기분이니, 《선제타격》이니 하며 전쟁불장난에 미쳐난 괴뢰군부호전광들.

삼천리강산에 차넘치던 민족화해와 단합의 열기를 졸이에 동토화시키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쌓아올린 6.15시대의 공든 탑을 통채로 무너뜨리려는 역적패당에 대한 민족의 저주와 분노는 하늘에 닿고있다.

자주를 부정해야 미국에 붙어살수 있고 평화가 파괴되여야 대결정책을 정당화할수 있으며 민족공조가 실현되면 명줄을 잃게 되고 통일이 되면 심판을 받아야 하는자들이 잔명을 부지하기 위해 6.15시대를 허용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역적패당은 우리가 선의를 보이면 보일수록 불손하게 놀아댔고 황당무계한 《급변사태》설까지 내돌리며 동족대결을 더욱 악랄히 추구하였으며 함선침몰사건과 같은 광대극까지 날조하면서 《응징》과 《제재》를 부르짖고있다.

전체 조선민족의 지향과 요구가 한줌도 안되는 극악한 친미반통일보수패당에 의해 무참히 우롱당하고 짓밟히는 비극을 계속 방관하고만 있겠는가.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저들의 《정권》유지와 체제대결을 위한 흥정물로 삼는자들, 《흡수통일》이라는 망상에서 깨여나지 못하고 동족대결에로만 질주하는 역적배들에게 기대할것도 없고 더이상 지켜볼것도 없다.

이번 남조선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우익보수, 반통일세력이 당한 대참패는 대결과 분렬에 환장이 되여 6.15시대에 거역해나서는자들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분연히 떨쳐일어나 자주와 평화통일의 암초, 참화와 전쟁의 화근인 리명박역적패당을 6.15시대의 이름으로 단호히 징벌하자.

괴뢰패당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다가서다가는 멀어지고 될만 하면 꼬이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로상에는 언제나 가증스러운 검은 그림자가 얼른거리고있으니 6.15공동선언의 리행을 가로막고있는 주범은 미국이다.

6.15공동선언으로 저들의 대조선지배정책에 파렬구가 나게 되자 북과 남이 손잡고 나가는데 대해 《선핵포기》니, 《속도조절》이니 하며 제동을 걸고 우리 민족끼리 평화와 통일문제를 결정할가봐 로골적인 간섭과 압력으로 가로막아나서는 미제,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정해놓고 남조선과 조선반도주변지역에서 전쟁소동을 매일같이 벌리며 괴뢰들과 결탁하여 함선침몰사건을 조작하고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제,

미제의 반공화국핵전쟁책동과 민족분렬책동을 보면서 우리는 강위력한 자위적핵억제력을 다져온것이 천만번 옳았으며 선군정치야말로 자주와 평화, 조국통일을 담보하는 백승의 무기라는것을 다시금 절감한다.

선군으로 열어놓은 6.15시대를 선군으로 지키고 전진시켜나가자!

공화국의 선군정치가 무서운 철퇴가 되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미투쟁이 노도가 되여 침략자 미제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의 참세상을 안아오자!

백두산을 우러르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천출위인상으로 빛발치는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광의 절정 백두산.

6.15공동선언은 백두산선언이며 6.15통일대하는 백두산에 시원을 두고 삼천리강토에 도도히 굽이쳐내린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백두산호랑이가 포효를 터치며 미제와 리명박패당을 비롯한 온갖 악의 무리를 징벌하고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 민족의 장래를 의탁하고있다.

우리 대에 기어이 조국을 하나로 만드실 철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히시며 온 겨레의 통일대행진을 진두에서 이끌어가시는 절세의 애국자이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김정일**장군님.

우리 장군님께서는 통일시기는 언제쯤 될것 같습니까라고 남조선언론사대표단의 한 성원이 스스럼없이 드리는 질문에 이렇게 결연히 말씀하시였다.

그것은 북과 남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우리가 어떻게 결심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는가에 따라서 통일은 이제 당장이라도 실현될수 있는 문제이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력사적인 평양상봉때 남조선당국자에게 통일강성대국의 미래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시였다.

나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의 단합된 힘과 슬기를 합쳐 우리 민족끼리 통일된 강성대국을 만들자고 한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세계를 쳐다보는것이 아니라 세계가 우리를 쳐다보게 하여야 한다!

그렇다.

장군님 계시여 6.15는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더욱 강해지고 더욱 뜨거워지고있다.

6.15를 받드는 겨레의 마음도 하나, 태양을 따르는 겨레의 발걸음도 하나이다.

북과 남, 해외의 조선민족이여,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믿고 따르라.

시련과 난관은 겹쌓여도 선군태양이 삼천리를 비치여 민족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

6.15를 지키면 모든것을 얻고 6.15를 버리면 모든것을 잃는다.

6.15를 따르면 만가지 복이 오고 6.15를 거역하면 만가지 화가 온다.

자주의 기상 도도하고 단합의 의지 드높은 《우리 민족끼리》의 대하는 최후발악하는 력사의 반동들을 시대밖으로 밀어내며 통일의 축포 터져오를 그날을 향해 용용히 굽이쳐갈것이다.

6.15격류여 통일에로 노도치라!

전 성 호, 리 춘 성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인민소비품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전투적인 투쟁기풍과 일본새로

강계편직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강계편직공장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편직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대환기들의 동음이 고르롭게 울리는 생산현장, 기대마다에 나붓기는 붉은기들, 시간을 다투며 창조되는 혁신의 새 소식이 전해지는 전투속보들…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난 5월에 상반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자랑을 안고 계속혁신의 한길로 줄달음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보다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강계편직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해말 북방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몸소 찾으시였던 영광의 일터이다. 현지지도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편직물을 더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들이 좋아하는 편직옷의 형태도 몸소 가르쳐주시며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심장으로 받들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편직물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공장의 일군들은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편직옷의 형태를 다양하게 하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작전을 면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일군들은 공장의 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3대혁명소조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생산실천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사업조건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주고있으며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더 좋은 생산전망을 열어나가기 위한 사업도 혁명적으로 전개하고있다.

올해초, 공장의 기술자들은 편직옷의 형태를 새롭게 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받들고 필요한 지구, 공구를 창안하고 도입하여 둥근깃옷을 다량생산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고심어린 탐구끝에 제품의 질을 한계단 높일수 있는 새로운 설계를 기본적으로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나의 편직옷에도 인민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대로 담겨지게 하기 위해 공장의 기술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이 바쳐가는 헌신의 열정에 의해 편직물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좋은 전망이 열리고있다.

지금 공장의 기술자들은 3대혁명소조원들과 힘을 합쳐 날염공정을 현대화하고 양말염색기를 자체의 힘으로 창안제작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또한 양말의 질을 더욱 높일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고 받아들여 수요자들의 기호에 맞는 여러가지 무늬의 양말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는 기술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인민들에게 형태가 다양하고 질이 좋은 편직물을 더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려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불타는 열정에 의하여 날에날마다 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고있다.

공장에서는 매월 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생산실적을 나날이 높여나가고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높이 세운 전투목표가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생산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생산의 첫 공정으로부터 제품완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들이 치차처럼 맞물리도록 원료보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조직사업을 앞질러가며 해나가는 일군들의 전투적인 일본새에 의해 생산현장에서는 만가동의 동음이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선행공정을 맡은 1제직직장의 로동계급이 편직천생산에서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직장의 기대공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는데 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설비에 정통하고 새 기술을 익히기 위해 이악하게 투쟁하고있다. 그리하여 여러명의 기대공들이 짧은 기간에 높은 기술기능을 소유하였으며 시간당 생산능률이 종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완성직장에서도 모든 공정들에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투쟁의 불을 걸고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제품가공시간을 종전보다 훨씬 줄이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한마음안고 총공세의 진격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다.

특파기자 공로혁

은을 내는 새 제품품평회

흥남구두공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여야 인민들에게 윤택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원만히 보장하여줄수 있습니다.》

최근에 흥남구두공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구두가 생산되고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우리는 공장을 찾았다.

그때 공장에서는 생산총화가 진행되고있었다.

우리를 맞이한 공장의 한 일군은 새 제품품평회가 곧 열리게 된다고 하였다. 그 말에 우리는 흥미가 부쩍 동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리하여 품평회의 조직방법과 형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였다. 공장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새 제품품평회가 어김없이 진행된다. 우리는 이날의 품평회에 직접 참가하여 제품의 가지수를 늘여가고있는 공장로동계급의 투쟁성과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넓은 책상우에 놓여있는 갖가지 형태의 신발들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품평회가 시작되자 여러가지 형태의 신발을 놓고 한건한건 진지한 의견들이 오갔다. 수요자들의 나이와 취미, 직업 등에 맞게 신발의 형태를 새롭게 하기 위해 진지하게 사색하고 열정을 바쳐가는 이들의 모습은 참으로 미더웠다.

이날 품평회에서 인기를 끈것은 나비장식을 한 녀자구두였다. 우리가 보기에도 살아움직이는 나비가 신발에 살짝 내려앉은것 같은 나비장식은 처녀들과 중년녀성들에게 잘 어울릴것 같았다. 드디여 참가자들의 지지찬동으로 준비직장장 양선희동무가 개발한 나비장식의 녀자구두가 큰 호평을 받고 생산에 도입하기로 결정되였다.

품평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배인동무는 새로 생산에 도입하게 되는 나비장식의 녀자구두를 잘 만들자면 갑피작업을 섬세하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갑피작업반에서 침판을 개조하고 북가마를 재생하여 갑피재봉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과제도 제기하였다.

결국 새 제품품평회는 구두의 형태뿐만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창안하게 하는 좋은 기회로 되기도 하였다.

품평회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 여운은 컸다.

후에 우리의 취재목적을 알게 된 지배인동무는 말하였다.

《월마다 새 제품품평회를 조직하고있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종업원들의 열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올해에만도 품평회를 통하여 생산에 도입한 새 제품개발건수는 여러건이나 되며 기술혁신창안건수도 근 10건에 달합니다.》

들을수록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창조적열정이 가슴뜨겁게 안겨왔다.

오늘 흥남구두공장의 제품들은 형태가 새롭고 질이 높아 인민들속에서 수요가 높아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한마음안고 더 높이, 더 빨리 달려갈 결의에 넘쳐있다.
—평양방직공장 편직사직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치고있습니다.》

함경북도의 수성천종합식료공장에 대한 취재길에서 새날을 맞이했을 때였다.

또 하루밤 창조의 동음을 높이 울린 공장은 서서히 자기의 멋쟁이모습을 드러내는데 새들이 우짖는 공장구내의 못가에 세워놓은 하나의 조각상이 안겨들었다.

《우리 공장제품을 맛보겠다고 이렇게 선녀가 춤을 추며 내려왔습니다.》

지배인의 다소 익살이 섞인 말이였다. 음미해볼수록 섬세하고 우아하게 형상된 조각상에는 전설속의 무릉도원도 무색하게 만복이 꽃펴나는 강성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미래에 대한 락관이 뚜렷이 반영되여있었다.

《우리 공장처녀들은 제손으로 행복의 락원을 꾸려간답니다.》

공장일군의 말을 듣고보니 생각은 더욱 깊어졌다. 밤새워 생산한 콩우유를 싣고 즐겁게 아이들을 찾아가던 《왕차》에서 목격한 일도 문득 떠올랐다. 이른새벽 뜻밖에 멎어선 콩우유차에서 내려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와하던 처녀들, 아이들이 기다린다며 그 육중한 자동차를 밀어보겠다고 애쓰다 못해 콩우유를 져나르겠다면서 나서던 기특한 처녀들…

제시간에 콩우유를 다 보장하고는 너무 기뻐 울고웃으며 얼싸안고 돌아가던 그 모습은 정녕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가슴에 새겨졌었다.

수필

조각상앞에서

미소를 짓던 평양방직공장의 정방공처녀들, 아무리 일을 해도 힘든줄 모르겠다며 기대앞에서 생글생글 웃음짓던 신의주신발공장의 기능공처녀들, 사회주의협동벌의 미더운 처녀농장원들, 최첨단을 돌파해가는 경공업과학연구기지의 실험실에서 조국의 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가는 녀성과학자들…

정녕 대고조시대 우리의 준마처녀들은 애국헌신으로 강성대국의 새날을 앞당겨가고있다.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을 꽃피워가는 길에 힘과 열정과 지혜를 깡그리 바쳐가고있는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들의 그 미덥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어찌 한갖 선녀의 모습에 비길수 있을것인가.

나는 확신하였다.

머지않아 이 땅우에 인민의 념원이 꽃핀 무릉도원, 세상이 부러워하는 강성대국이 펼쳐지는 그날 우리의 처녀들은 위훈으로 빛내인 대고조시대의 오늘의 하루하루를 긍지높이 추억할것이라고.

박유정

제품의 질보장에 큰 힘을

박천견직공장에서

박천견직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한마음안고 질좋은 비로도와 담요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제품의 량과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가까운 몇해안에 인민소비품생산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긴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제품의 질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들의 기호와 시대적미감에 맞는 비로도와 담요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그 수행에로 생산자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기대공의 자질이자 제품의 질이라는것을 명심한 공장의 일군들은 직장, 작업반들의 실정에 맞게 《기술학습의 날》을 실속있게 운영하도록 조건을 잘 지어줌으로써 새로 들어온 로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기대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한계단 높이고있다.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는것을 생산정상화와 제품질제고의 중요한 방도로 내세운 담요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색갈곱고 문양고운 갖가지 담요생산을 늘여나가고있다.

2직포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질좋은 비로도를 많이 생산하고있다.

최근 직장에서는 비로도생산공정을 새롭게 확립하여 제품의 질을 훨씬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염색가공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일기조건에 맞게 열관리를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합리적인 염색가공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제품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공장에서는 기술준비실력량을 책임성이 높고 진취성이 강한 젊은 기술자들로 꾸리고 그들의 사업조건을 잘 보장해주고있다. 이에 고무된 기술준비실의 기술자들은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해결에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최근년간 공장에서는 비로도와 담요의 질을 높일수 있는 수십건의 가치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이미 이룩한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든 비로도와 담요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기술개건을 다그쳐

벽성수지일용품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

벽성수지일용품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매달 맡겨진 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하고있다. 이 성과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제품의 질을 높이고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기술개건사업을 힘있게 벌린 결과에 이룩된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무슨 일이든지 방법론이 옳게 서야 잘될수 있습니다.》

지난해 벽성군에서는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안의 지방공업공장들에 대한 기술개건사업을 통이 크게 벌리였다. 온 군에 기술개건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데 맞게 공장의 일군들은 현대화목표를 높이 세웠다. 생산은 생산대로 밀고나가면서 방대한 기술개건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해낼수 있겠는가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그때 당조직에서는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기술개건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종업원들에게 깊이 인식시켜주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창조적지혜와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대화를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의 일군들은 대중을 불러일으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김행호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기능공들이 기술개건사업의 앞장에 섰다. 일군들은 현장에 나가 그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이와 함께 설비제작과 개조에 필요한 자재들도 제때에 해결해주었다.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지난 한해동안에 중공성형기, 판압출기, 유압프레스를 창안제작하였으며 로루기와 사출기의 대보수를 진행하였다.

그 나날 공장에서는 이미 있던 생산건물들을 확장하고 번듯하게 보수하였으며 사무실들과 창고, 목욕탕 등을 새로 꾸려놓았다. 색보도블로크와 타일도 자체로 마련하여 일터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리였다.

기술개건을 진행한 보람은 컸다. 공장에서는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고 가지수를 더 늘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기술개건성과가 계속 확대되는 속에 일용작업반이 진공뽐프를 개조하고 수지작업반이 원료분쇄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기술개건을 끝낸데 이어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지금 공장의 로동계급은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인민의 행복이 더 활짝 꽃펴나게 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품을 들일수록 실효가 크다

혜산시제1인민병원 초급당위원회에서

《직관선전물의 형식을 새롭게 하니 선군사상의 원리와 내용이 머리에 더 쏙쏙 들어온다.》

《정말 훌륭한 학습방법이다.》…

이것은 얼마전 혜산시제1인민병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보조진단과 당세포에서 진행한 선군사상학습을 놓고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다.

결국 그날의 선군사상학습이 큰 실효를 거둔셈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상교양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폭넓고 깊이있게 진공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얼마전 종업원들의 선군사상학습정형을 알아보기 위해 보조진단과 당세포에 내려갔던 초급당일군은 하나의 좋은 싹을 발견하게 되였다. 직관선전물들을 잘 만들어놓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는 사실이였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의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나가기 위해 애쓰고있는 이곳 당세포의 경험은 참으로 긍정할만 한것이였다. 그러고보면 보조진단과 당세포가 환자치료는 물론 단위의 전반사업에서 앞선 단위의 영예를 계속 떨치는데는 바로 종업원들속에 선군사상학습을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는것과 크게 관련되여있었다.

아직은 어설픈데가 있지만 잘 도와준다면 종업원들이 선군사상학습에서 큰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초급당일군은 보조진단과 당세포를 적극 떠밀어주어 그 경험을 다른 과들에도 일반화하기로 결심하였다.

초급당일군자신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직관선전물의 형식을 새롭고 다양하게 하기 위한 사업에 많은 품을 들이였다. 글자의 모양과 색갈, 크기와 함께 어떤 내용들을 서술할것인가를 놓고 당세포의 당원들과 밤을 새워가며 토의를 거듭하였다. 이와 함께 출연자들의 강의준비에도 초급당일군은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되여 보조진단과의 복도와 방들에는 당의 선군령도업적을 해설하는 위대성교양자료카드들과 직관물들이 훌륭히 갖추어지게 되였다.

충분한 준비밑에 진행된 보여주기사업은 응당한 실효를 거두게 되였던것이다.

그날 참가자들은 특색있게 만들어진 직관선전물들을 보기도 하고 그를 통한 해설을 듣기도 하면서 우리 당의 선군사상의 원리와 내용들을 더 깊이 파악할수 있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한걸음 더 들어가 보조진단과 당세포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성과는 컸다. 그 과정에 병원안의 모든 과들과 복도, 휴식터는 물론 사람들의 눈길이 잘 미치는 구내의 여러곳에 수십점에 달하는 직관물들이 그쯘히 갖추어지게 되였으며 병원은 그야말로 종업원들을 위한 하나의 선군사상교양마당으로 전환되였다.

이곳 단위가 시작으로 진행되는 선군사상문답식학습경연에서 여러차례 우승의 영예를 지니고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을 비롯한 단위의 전반사업에서 혁신을 가져오는데는 초급당위원회가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실속있게 짜고든것과 크게 관련되여있다.

그렇다. 당의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에서의 실효는 품을 들인것만큼 크기마련이다.

본사기자 최영길

실속있는 감자농사작전과 실천

장진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 관철을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장진군에서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올해 감자농사의 밝은 전망을 마련하였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일단 내세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투적으로 일하며 뛰고 또 뛰는 완강한 실천가가 되여야 합니다.》

군에서 올해에 정보당 50t이상의 질좋은 거름과 10t의 흙보산비료를 낼 높은 목표를 내세웠을 때였다. 사실 이것은 어려운 과제였지만 어떻게 하나 무조건 수행하지 않고서는 감자농사에서 장훈을 부를수 없었다.

이 문제를 놓고 군책임일군들은 사색을 거듭하였다. 군에서는 이미전부터 장진고원의 기온이 매우 낮은 실정에 맞게 작업반마다 온돌을 놓은 흙보산비료생산기지들을 꾸려놓고 숙성온도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흙보산비료를 생산하여왔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올해에 높이 세운 흙보산비료생산목표를 수행할수 없었다. 그 방도를 꼭 찾아내야만 하였다.

어느날 읍협동농장에 나갔던 군책임일군은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만나 이 문제를 토의해보았다. 그때 제5작업반장이 태양열온실형식의 흙보산비료생산기지를 건설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내비치였다. 좋은 발기였다. 책임일군은 그 안을 더욱 무르익혀나갔다.

(온돌형식에 태양열온실형식을 결합한 흙보산비료생산기지를 반지하식으로 건설한다면?…)

그의 착상에 모든 군일군들이 무릎을 쳤다. 사실 겨울철 대기온도가 대단히 낮고 바람이 세찬 장진지방이지만 반지하식으로 태양열을 리용하는 흙보산비료생산온실을 건설하고 불까지 지핀다면 땔감을 절약하면서도 숙성기일을 단축하여 높아진 흙보산비료생산목표를 능히 점령할수 있었다.

읍협동농장 제5작업반과 서목협동농장 제2작업반을 본보기단위로 정하고 흙보산비료생산기지를 잘 건설하도록 적극 도와준 군일군들은 협동농장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이 참가한 가운데 보여주기사업을 한 다음 이 사업을 전투적으로 내밀었다. 여기서 군일군들이 잘한것은 흙보산비료생산기지건설을 협동농장들에만 맡겨둔것이 아니라 매일 건설정형을 알아보고 일군들이 직접 걸린 고리를 풀어주어 짧은 기간에 끝내도록 한것이다. 새로운 형식의 흙보산비료생산기지들을 건설함으로써 올해 군에서는 정보당 10t이상의 흙보산비료를 질적으로 생산하여 리용하게 되였다.

봄철의 기상기후조건이 대단히 불리하였던 올해에 감자종자싹을 례년에 없이 실하게 키워 밭에 옮겨심게 된 여기에도 군일군들의 탐구와 주도세밀한 작전이 안받침되여있다. 군일군들은 지난해농사교훈에 비추어 감자생육기일을 가능한껏 앞당길 작전을 세웠다.

그러자면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싹틔우기기일을 보장하여야만 하였다. 그런데 문제로 되는것은 이미 건설한 감자종자처리장만 가지고서는 싹틔우기기일을 보장할수 없는것이였다. 여러차례 토의한 끝에 군일군들은 야외싹틔우기장면적을 훨씬 늘이는것을 기본방도로 찾았다. 야외싹틔우기장면적이 늘어나는데 따라 더 요구되는 비닐박막은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군자체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군일군들은 감자종자가 랭해를 입을수 있는 조건을 고려하여 협동농장 작업반들마다 감자종자저장고가까이에 구뎅이를 깊숙이 파고 보온재료를 두툼히 깐 다음 감자종자를 펴고 비닐박막을 씌우게 하였다.

이렇게 야외에서 해빛을 리용하여 싹틔우기를 하니 기일을 줄이면서도 실한 싹을 틔울수 있었으며 포전에 내다심은 감자종자들이 병에 걸리는 현상도 막을수 있어 좋았다.

군안의 농장들에서 감자종자싹틔우기함을 만들어 리용하게 한것도 경험적이다. 감자생육기일을 앞당길 방도를 찾아 꾸준히 사색하던 군책임일군은 군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함께 대홍단군을 찾았다. 감자종자저장고며 싹틔우기장 등을 유심히 살펴보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기발한 착상을 하였다. 간살로 된 함을 잘 만들어 종자보관에도 리용하고 봄철에는 싹틔우기장의 공간들에 배치하여 리용하면 어떻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렇게 하면 싹틔우기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도 싹틔우기실수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종자운반로력도 절약할수 있었다.

군책임일군의 착상은 일군들의 지지를 받아 올해농사차비시기에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갔다. 군에 흔한 나무가지로 해빛이 충분히 스며들수 있는 간살로 된 감자종자싹틔우기함을 작업반마다에서 만들어 리용하였다. 그리하여 올해 군에서는 례년에 없이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실한 싹을 틔워 감자심기를 다 그치였다.

군에서는 감자밭면적을 늘이기 위한 사업도 본때있게 진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수십정보 늪지대를 개간하여 감자밭면적을 늘인 실례를 놓고보자.

감자생산을 어떻게 하면 더욱 늘이겠는가. 늘 이렇게 사색하던 군책임일군의 발길은 늪수협동농장의 늪지대에로 자주 이어졌다. 그는 이 농장사람들과 만나 진지하게 토의하는 과정에 증산의 예비는 바로 그 늪지대를 개간하여 새 땅을 찾아내는데 있다는것을 포착하였다. 즉시 측량과 설계를 진행하게 한 그는 설계가 완성되자 군일군들과 함께 현지에 나가 개간공사를 전투적으로 지휘하였다. 그리하여 군에서는 열흘 남짓한 기간에 2만 5천여㎥의 흙을 처리하면서 수천m의 물도랑을 째여 수십정보의 새 땅을 얻어냈으며 그 땅에 많은 유기질비료를 내고 감자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당의 경제정책관철의 운명은 전적으로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받들고 감자농사작전을 잘하고 모든 사업을 혁신적으로 전개해나가고있는 군일군들의 사업은 경험적이다.

본사기자 김향란

참다운 동지적사랑에 대한 진실하고도 감명깊은 형상

예술영화 《우리 정치지도원》에 대하여

최근 조선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장정의 길에 높이 내세워주신 인민군대한 녀성중대정치지도원을 원형으로 한 예술영화 《우리 정치지도원》(영화문학 김경화, 연출 고일)을 만들어내놓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동지애는 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며 동지를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는 자기희생정신이고 동지에 대한 끝없는 헌신입니다.》

지난 시기 우리 영화예술은 인민군대의 초급정치일군을 형상한 예술영화 《중대정치지도원》을 훌륭히 창조한바 있다. 창밖에 함박눈이 흩날리는 저녁 먼곳에 있는 동생을 위해 뜨개질하는 맏누이의 모습에서 자기의 본분을 더 깊이 자각하며 병사들을 친형제처럼 따뜻이 이끌어주는 중대정치지도원의 형상은 오늘도 우리 병사들과 인민들의 추억속에 인상깊게 간직되여있다. 오늘 우리는 새로 나온 예술영화 《우리 정치지도원》을 통하여 선군시대 중대정치지도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명깊게 받아안게 된다.

예술영화 《우리 정치지도원》은 조국의 초소마다에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성장한 인민군지휘성원들의 사상정신적지향을 평범한 녀성중대정치지도원의 형상을 통하여 특색있게 밝힌 의의있는 작품이다.

중대의 지휘관이 여러번 바뀌도록 정치지도원으로 복무하여온 은옥, 그의 가슴속에는 과연 무엇이 간직되여있었던가.

병사생활을 마치고 대학에서 공부하던 나날 은옥에게는 삶의 좌우명을 받아안는 계기가 있었다. 그것은 인민무력부문의 선동원대회에 참가하였던 부대의 옛 정치일군이 들려준 전설같은 이야기였다.

당시 대회진행정형을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 중대에서 같이 복무하고있는 쌍둥이자매중에 언니만 대회에 참가하고 동생은 참가하지 못했다는것을 알게 되시자 못내 섭섭해하시며 자신께서는 인민군전사모두를 친자식으로 대해왔다고 하시면서 그 동생도 대회에 꼭 참가시키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는것이다. 하여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으로 비행기가 날고 대회장에는 쌍둥이자매의 감격적인 상봉이 펼쳐지게 되였다. 동서고금의 건군사에 없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은 그날 은옥은 불같은 맹세를 다지게 된다.

—그 어느 병사에게나 친부모의 사랑보다 더 따사롭고 웅심깊은 사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를 따라배우리라.

그날의 맹세를 지켜 모든것을 다 바쳐온 은옥을 대원들은 《우리 정치지도원》이라 정답게 부르며 따른다.

영화는 이러한 은옥이가 얼마후면 제대되게 되는 극적인 정황속에 펼쳐지는 생활을 통하여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적필승의 당보인 혁명적동지애의 숭고한 세계를 특색있게 형상하고있다. 작품은 은옥이가 군사복무의 마지막나날에 겪게 되는 체험과 그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지휘관의 참된 동지적사랑은 순결하고 속깊은 병사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내세워주는데 있다는 사상을 밝히고있다.

영화는 이러한 사상을 중대의 여러 병사들과의 관계속에 발현되는 주인공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생활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상급에서 조직한 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에 중대병사 은애의 집을 찾았던 은옥은 그의 아버지가 희생되였다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다. 중대에 돌아와서도 가슴아픈 소식을 어떻게 본인에게 알려줄것인가 하고 마음을 써오던 은옥은 뜻밖에 은애의 무규률적인 행동으로 중대의 전투준비판정검열에서 상급의 지적을 받는 정황에 부딪치게 된다.

순진했던 병사의 마음에 티가 앉았다고 서둘러 속단했던 은옥은 한 병사로부터 은애가 남몰래 동지의 속탈치료에 쓸 돌이끼를 채취하다가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되였다는것을 보고받게 되였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더우기 그가 아버지소식을 이미 알고있었다는 사실앞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된다.

병사들의 마음속깊이에 간직된 진정을 알게 되는 은옥의 체험은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깊은 밤 스스로 개별훈련을 하다가 어깨에 밀려드는 동통으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 춘미, 험한 산고개를 넘어 군의소에 찾아온 정치지도원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누가 고와하든미워하든 복무의 길에 자기를 바치면 그만일텐데 내세워주지 않는다고 지휘관을 원망해온데 대해 자책하는 병사의 진정을 알게 되였을 때 은옥의 가슴은 쩌릿해진다.

상급학교입학을 마다하고 혁명의 군복을 입고 나선 딸자식을 그토록 대견해하던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굳은 의지를 품은 은애와 부모없는 두 동생을 먼 친척집에 맡겨놓고 아무런 내색도 없이 복무의 길에서 자기를 성실하게 바쳐가는 춘미의 미더운 모습앞에서 은옥은 훌륭한 새 세대 병사들을 키워낸 위대한 시대의 숨결을 가슴벅차게 느끼게 되는것이다. 이들의 모습에서 은옥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된 긍지와 영예를 안고 청춘시절을 빛내이려는 전사들의 진주보석같은 마음을 헤아리게 되며 중대정치지도원의 위치를 더 깊이 절감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체험을 겪게 된 은옥은 상급학교추천사업을 실무적으로 대할수 없었다.

사실 은옥은 군의대학으로 중대의 위생지도원 영실이를 떠나보내려 하였다. 영실의 아버지는 은옥의 아버지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내였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나섰던 고마운 은인이다. 이것을 알고있는 사단정치위원은 아직은 그 사연을 모르고있는 은옥이를 대신하여 영실이를 위해주려 한다.

그러나 늦게나마 중대의 위생지도원인 영실에게 전우들을 위하고 지휘관을 생각하는 마음이 따로 있다는것을 알게 된 은옥은 자못 심중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이때 은옥은 상급학교추천에서 개별적일군의 체면이나 가정의 남다른 사정을 생각하기 전에 병사들의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것이다. 지휘관의 비판을 받을 때에도 동지를 위해 바친 소행은 묵묵히 새겨두는 은애를 군의대학에 보내자고 말하는 선화며 의학전문학교 입학통지서를 받고도 조국이 있어야 자기의 꿈도 꽃필수 있다는 고상한 꿈과 포부를 안고 초소에 선 은애를 군의였던 아버지의 뒤를 잇도록 하자고 제기하는 영실… 순결하고 웅심깊은 병사들의 마음이 보석처럼 빛을 뿌리는 이 장면은 참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있다.

작품의 감명깊은 화폭에서 우리는 병사들을 위하여 부모형제보다 더 극진한 사랑을 바치고있는 인민군대 지휘관들의 모습을 그려보게 되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와 혈연의 정으로 굳게 맺어진 인민군전사들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혁명적동지애의 세계를 엿보게 된다.

병사들의 모습에서 은옥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해발을 비쳐가야 할 중대정치지도원의 사명은 설사 제대명령을 받는다고 하여도 끝나지 않는다는 량심의 메아리를 듣는것이다.

스스로 택한 헌신의 길에는 결코 고생이나 희생이란 말이 있을수 없다.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위한 창조이고 투쟁이며 행복이다. 하기에 은옥은 주저없이 제대배치지를 춘미병사의 고향으로 정하며 그의 동생들을 한품에 안고 친언니의 밝은 웃음을 짓는것이다.

사려깊은 심정으로 병사들을 돌보는 중대정치지도원의 모습도 아름답다. 하지만 혈육의 정을 초월하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사랑의 높이에 자신을 올려세우려고 제대후의 꿈많은 인생도 병사들을 위해 아낌없이 바쳐가는 중대정치지도원의 모습은 더욱 아름답고 고결하다.

《우리 정치지도원》 은옥의 사상정신세계,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슬하에서 성장한 선군시대 우리 인민군지휘관들의 한결같은 모습이다.

영화에는 이러한 시대적감정을 주인공만이 아닌 여러 인물들의 개성적인 형상을 통하여 깊이있고 풍만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친자식을 찾아가는 심정으로 중대에 내려가는 사단정치위원의 후더운 인정미에도, 자기 자식을 잘 돌보아달라는 옛 담임선생의 부탁을 남편앞에 터놓지 않는 정치위원의 안해의 속깊은 마음에도 우리 병사들모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아들딸이며 그들의 마음에 한점의 그늘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깨끗한 량심과 자각이 비껴있는것이다.

영화는 비록 자그마한 생활을 소재로 하고있지만 인민군장병들의 높은 사상정신적풍모를 시대적높이에서 일반화함으로써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적필승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금 명백히 밝히고있다. 혈육의 정을 초월한 숭고하고 열렬한 혁명적동지애로 굳게 단합된 우리 인민군대의 관병일치, 혼연일체의 힘이야말로 백두산혁명강군에만 있는 최강의 무기이다. 그 어떤 원쑤도 이 위대한 힘앞에서는 패배를 면할수 없음을 예술영화 《우리 정치지도원》은 다시금 명백히 확인해주고있다.

차 수

경암각 일군들과 종업원들

인민을 위해 땀흘린 보람

수도에 자리잡고있는 황해북도특산물식당인 경암각이 새 모습을 자랑하고있다. 고운 색갈의 타일을 산뜻하게 붙인 건물의 외형도 보기 좋지만 내부도 급양봉사단위답게 문화위생적으로 알뜰하게 꾸려져있다.

화강석을 깔아 알른거리는 바닥이며 크고 넓은 식사실들과 산뜻한 식탁들,

주방칸에는 봉사에 필요한 각종 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식당의 안팎이 문화위생적으로, 현대적으로 꾸려져있는데다가 종업원들의 봉사성 또한 높아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수는 매일 수백명을 헤아린다.

안팎으로 멋쟁이식당!

경암각이 손님들로부터 이렇게 불리우게 된데는 지배인 강금옥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에게 있어서 보람있는 생활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면서 인민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두해전 수도의 경암각 지배인으로 임명된 강금옥동무는 통이 큰 일판을 벌리였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힘으로 식당을 새로 일떠세우자!

쉬운 일은 아니였다. 종업원의 대부분이 녀성들인 조건에서 꽤 해낼수 있을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집단의 단합된 힘으로는 못해낼것이 없습니다.》

당세포비서 김영희동무는 이렇게 말하며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켰다. 지배인 강금옥동무는 대중의 앞장에 서서 식당을 새로 꾸리기 위한 일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갔다. 그의 뒤를 따라 종업원모두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건설전투를 벌리였다. 그 소식은 황해북도당위원회와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일군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수도시민들에게 우리 도의 특산물을 더 훌륭히 봉사하기 위한 사업인데 힘껏 도와줍시다.》

도당위원회책임일군의 호소였다.

례성강발전소, 도예술극장을 비롯하여 도적인 건설대상들이 적지 않았지만 황해북도 일군들은 발벗고나섰다. 그들은 건설로력도 보내주고 자재보장사업도 적극 도와주었으며 륜전기재들도 해결해주었다. 내각사무국과 상업성을 비롯한 여러 단위 일군들도 많은 자재들을 가지고 건설장으로 달려왔다. 그들의 성의있는 지원으로 건설은 더욱 힘있게 진척되였다.

식당종업원들의 사기는 충천했다. 아무리 일해도 힘들고 피곤한줄 몰랐다.

이렇게 되여 경암각이 짧은 기간에 멋쟁이건물로 일떠서게 되였다.

강금옥동무를 비롯한 식당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음식의 특성을 살리고 봉사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그들은 국수, 잣죽, 떡, 약밥, 추어탕을 비롯한 음식들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훌륭하게 꾸려진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들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손님들의 웃음넘친 모습을 보면서 경암각의 종업원들은 새로운 결심을 다진다.

—인민들을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리리라!

본사기자 김 승 표

백살장수자가 받아안은 크나큰 은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생일상이 강계시 독산동에 살고있는 백살장수자 김덕순할머니에게 전달되였다.

생일상을 받아안은 할머니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망국노의 설음을 뼈저리게 체험하며 살아온 그는 조국이 해방된 후에야 비로소 참된 삶을 누리게 되였으며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으며 질병도 고치고 건강한 몸으로 생활하여왔다.

그는 당과 수령의 은덕에 보답할 일념을 안고 여러 초소에서 성실히 일하였으며 년로보장을 받은 후에도 일손을 놓지 않았다.

편식을 모르는 할머니는 언제나 락천적으로 생활하고있다.

그는 자식들에게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당부하고있다.

할머니의 가족, 친척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모든것을 바쳐갈 열의에 넘쳐있다.

【강계발 조선중앙통신】

군인들을 위하는 뜨거운 지성

중구역 신암종합진료소 종업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희천발전소건설장으로 떠나기 위해 원호물자와 예술소품공연준비로 흥성이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병사들을 위해 원호물자를 마련해가는 그들의 얼굴에 원군은 최대의 애국이라는 선군시대의 공민적본분을 다해가는 긍지가 한껏 어려있다.

지난 20여년동안 원군사업과 함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건설에 대한 지원사업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여 얼마전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안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김련희동무의 얼굴에도 기쁨이 넘쳐난다. 참으로 하나하나의 원호물자마다에 병사들을 위하는 뜨거운 마음이 비껴흐른다.

해마다 원군사업을 통이 크게 벌려온 그들이다. 지난 수년동안 소장 리명순동무를 비롯한 종업원들은 군인들에게 많은 도서들과 병사수첩을 보내주었다.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자료들이 수록된 도서들과 서정시 《용서하시라》, 《나의 조국》, 《어머니》, 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를 적은 병사수첩을 군인들에게 보내준 그들의 마음은 참으로 웅심깊은것이다.

그들이 군인들을 위해 기울인 뜨거운 마음과 지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이들은 병사들에 대한 원호사업을 하면서 618건설돌격대원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 종 훈

15년을 하루와 같이

은산군 령대 로동자구 김옥희, 리순덕로인들은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기 위한 사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고있다.

15년전 구봉천기슭에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김옥희, 리순덕로인들은 하루와 같이 태양상주변관리를 진행하여왔다.

로인들은 관리사업을 정성껏 진행하는 한편 자체의 힘으로 많은 관리도구들을 마련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밝고 정중히 모시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김옥희, 리순덕로인들은 자신들뿐아니라 자녀들도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받들어 모시고 석탄생산성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도록 잘 이끌어주고있다.

이들의 소행은 온 마을의 자랑으로, 새 세대들의 훌륭한 모범으로 되고있다.

로농통신원 김 봉 일

중국을 방문하였던 조선청년친선대표단 귀국

【평양 6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을 방문하였던 리광학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청년친선대표단이 13일 귀국하였다.

평양역에서 길철혁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와 리경강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참사가 대표단을 마중하였다.

중국을 방문하였던 조선건축가동맹대표단 귀국

【평양 6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을 방문하였던 박길우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건축가동맹대표단이 13일 렬차로 귀국하였다.

비약의 열풍을 뿜어주는 송풍기가 되여

김철의 호소에 화답하자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 때 못해낼 일이 없다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라는 김철의 호소에 화답하여 산악같이 일떠선 우리 지도국 전체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금 수도려객운수사업에서 새로운 혁신과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그런 속에서 새형의 무궤도전차생산에 성공하고 수도려객운수운영을 정상화하고 더욱 발전시킬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는것과 같은 적지 않은 성과들을 거두게 되였다. 이 과정에 우리는 일군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심장에 불을 달 때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가의 첫째가는 실력은 대중을 알고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는 능력이다.》

김철의 호소에 접하였을 때였다. 우리 지도국당위원회에서는 비상히 앙양된 대중의 열의에 맞게 그들을 수도려객운수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우리는 대중속에 들어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수도려객운수발전력사에 깃들어있는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인민에 대한 하늘같은 사랑을 적극 해설선전하는 한편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하고 수도의 면모를 살리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수도려객운수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절세의 위인들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되였다. 지금 수도의 거리를 달리고있는 새형의 무궤도전차들도 그런 과정에 태여나게 되였다. 이 무궤도전차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대중려객운수수단이다. 이 무궤도전차에는 첨단기술에 기초한 자속절환형전동기와 조종체계가 도입되였다. 지금 우리 지도국아래 한 공장에서 계렬생산되고있는 자속절환형전동기만 보더라도 종전의 무궤도전차전동기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가벼우며 제작공정이 단순하여 전기동을 비롯한 자재와 로력을 30%이상 절약하며 특별한 고장이 없고 보수주기가 길어 운영원가를 훨씬 줄일수 있다. 특히 낮은 전압에서도 무궤도전차가 정상가동할수 있게 하며 전력도 40%이상 절약한다. 앞으로 수도의 모든 무궤도전차로선에서 새형의 무궤도전차들이 뛰게 되면 년간 수백만kW의 전력을 절약하게 된다.

이러한 현대적인 무궤도전차제작은 곧 수령결사옹위정신, 당정책결사관철정신의 산물이며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이 안아온 귀중한 열매로 된다. 대중의 심장에 불이 달리고 그들의 정신력이 폭발된 결과 그처럼 첨단수준의 전동기도 개발되고 우리 식의 현대적인 새형의 무궤도전차도 훌륭하게 제작된것이다. 그날에 우리는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가슴속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깊이 심어주고 무궤도전차공장, 전차선공장, 뻐스수리공장, 고무제품공장을 비롯한 국아래 모든 단위들에서 사회주의경쟁바람이 세차게 일어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으며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혁신자들을 적극 내세우며 그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사업도 줄기차게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 무궤도전차, 궤도전차, 뻐스수리기지와 궤도전차바퀴, 스리브, 가락지, 피대, 전차선, 각동선 등 수도의 모든 려객운수수단정상가동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 고무제품, 유색금속제품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는 기지들도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으며 종업원들을 위한 정양소도 멋들어지게 건설되게 되였다. 이와 같은 성과들을 두고 나는 다시금 말하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우리 일군들이 투쟁의 송풍기역할을 바로할 때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일터에서 새로운 혁신과 비약을 이룩할수 있다고.

지금 우리 지도국 전체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대량생산해내여 인민들의 교통상편의를 더 원만하게 보장해주고 수도의 거리들을 보다 환하게 만들 결의를 안고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수리정비기지들을 현대화하고 모든 무궤도전차사업소, 궤도전차사업소, 뻐스사업소들에서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수도려객운수운영사업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 열의로 온 집단이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고있다. 우리 지도국당위원회는 앞으로도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며 대중을 힘차게 불러일으킴으로써 수도의 려객운수사업에서 일대 변혁이 일어나도록 하겠다.

수도려객운수지도국 당위원회 책임비서 오 덕 룡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에게는 말잘하는 일군보다도 실천력이 강한 일군이 필요합니다. 실천으로 당을 받드는 사람이 진짜충신입니다.》

얼마전 또다시 우리 대홍단군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을 나라의 감자농사혁명의 본보기로, 더욱 살기 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우리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철**의 로동계급처럼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방법론을 옳게 세워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누구나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 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특히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들자신이 주인이 되여 군을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우리는 이미 자체의 힘으로 감자가공공장의 설비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훌륭한 경험을 가지고있다.

우리는 기술자들을 대담하게 믿고 그들의 창의창발성이 높이 발양되도록 힘과 용기를 주면서 높이 세운 목표를 향하여 완강하게 전진하도록 떠밀어줌으로써 짧은 기간에 공장의 설비능력을 높이고 제품의 질을 훨씬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군농기계작업소에서 중주파유도로를 새로 도입하여 봄철영농전투에 필요한 수천점의 련결농기계부속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할수 있은것도, 군종이공장에서 유휴자재를 리용하여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훨씬 앞당겨 수행할수 있은것도 그리고 군소재지에서뿐아니라 농장들에서도 8월3일인민소비품을 짱짱 생산하여 군안의 주민들에게 공급할수 있게 된데도 우리 힘, 우리 손으로 백두삼천리벌에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차넘치는 사회주의리상촌을 건설하려는 대중의 드높은 혁명적열정을 떼여놓고는 생각할수 없다.

경험은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킬 때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웅대한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앞에는 감자농사에서 련속 통장훈을 부르며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할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욱 과시해야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점령해야 할 과제가 나서고있다. 지방산업공장들의 현대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치고 전자도서관을 건설하며 많은 살림집을 일떠세워 군소재지의 면모를 사회주의선경답게 더욱 일신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정책의 운명이 일군들의 어깨우에 달려있다는 자각을 안고 이미 내세운 목표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창건 65돐전으로 해제낌으로써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더 뜨겁게 미치게 하겠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혁명의 송풍기가 되여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킴으로써 군안의 그 어느 전투장이나 장군님의 현지말씀 관철로 부글부글 끓게 하겠다.

대홍단군당위원회 책임비서 김 동 일

기술혁신의 불길드높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나가며 누구나 다 새 기술의 창조자, 혁신자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장에는 많은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이 있다. 이들의 힘과 지혜만 총폭발시켜도 적지 않은 생산장성의 묘안들이 나올수 있다.

지난 기간 《4.15기술혁신돌격대》 활동을 활발히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 전국적인 기술혁신경기에서 1등의 영예를 쟁취한 우리 공장의 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지금 전기와 자재, 로력을 훨씬 절약하면서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생산제품들의 질과 설비능력을 높일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고있다.

이들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공장초급당위원회에서는 돌격대원들과의 사업을 계기와 장소가 따로 없이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한편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을 우대하고 내세우기 위한 사업도 행정일군들과 힘을 합쳐 더 잘 진행해나가고있다.

공장초급당위원회에서는 기술혁신돌격대원들만이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산장성을 위한 과학기술적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고있다.

이 사업에서 공장일군들부터가 앞장서도록 하고있다. 일군들부터가 우리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과학과 기술을 더 잘, 더 깊이 습득하기 위한 학습에 힘을 넣도록 하고있다. 일군들의 뒤를 따라 로동자들도 자기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자기가 맡은 공정에서 한가지이상의 기술혁신안들을 내놓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그야말로 온 공장이 기술혁신의 불길속에 휩싸여있는셈이다.

모든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다같이 학습하고 사색하면서 기술혁신에 힘을 넣은 결과 공장에서는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많은 기술혁신안들이 성공하였다.

기술혁신사업을 틀어쥐고 방법론있게 조직정치사업을 해나갈 때 높은 생산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나는 이 연단을 통하여 생산장성과 기술혁신사업에서 우리 당일군들이 앞장에 설 때 못해낼 일이 없고 이룩하지 못할 성과가 없다는것을 말하고싶다.

개천탄광기계공장 초급당비서 김 락 응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모시여 휘황찬란한 통일조국의 앞날

온 강토를 진감시킨 위인흠모의 환호성

꼭 10년이 되였다.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6.15의 해빛이 따스히 스며들기 시작한 때로부터.

6.15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나날은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밀어내고 화해와 단합의 새시대를 열어주시였으며 찬란한 통일조국의 밝은 전망을 펼쳐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해내외 온 겨레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른 잊지 못할 나날들이였다.

10년전 6월의 환희가 가져다준 충격이 너무나 크고 그로부터 시작된 《우리 민족끼리》시대의 모습이 너무도 격동적이여서 우리 겨레 누구나 력사의 그날을 잊지 못한다.

2000년 6월 13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평양으로 오는 남측대표단을 영접하시기 위해 몸소 비행장에 나오시였다. 격정의 그 순간 온 민족이 그토록 따르고 흠모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존귀하신 모습을 직접 뵈옵는 남측대표단 성원들의 환희의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왔고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전하는 특별보도가 온 우주공간을 꽉 채웠다.

당시 남측대표단의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에 왔던 한 인사는 그날의 감격과 흥분에 대해 자기의 글에 이렇게 썼다.

《갑자기 환영군중으로 나온 민족옷을 입은 녀성들이 환호를 올리며 꽃을 흔들었다. 나와 일행은 무심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순간 내가 서있는 몇m앞으로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걸어나오시는것이 아닌가.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아마 이때의 격정과 충격은 평생 가도 지워지지 않을것 같다. …》

당시 남조선의 한 호텔에는 력사적인 평양상봉소식을 보도하기 위한 기자쎈터가 생겼다. 여기에서 남조선의 언론사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에서 제노라 하는 언론사의 수많은 기자들이 취재보도경쟁에 여념이 없었다. 그들이 대형전광판에 시선을 집중하고있을 때였다. 장내에서 《야!》 하는 환성과 함께 열광적인 박수소리가 터졌다.

남측 성원들을 영접하시기 위해 비행장에 나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전광판화면에 모셔졌던것이다.

격정에 넘쳐 박수를 치고 환호를 올리는 기자들, 눈물을 훔치는 기자들, 기쁨에 넘쳐 발을 동동 구르는 기자들, 그야말로 기자쎈터는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였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의 한 신문은 《평양의 상황이 현지시간으로 중계되던 서울 롯데호텔의 기자쎈터, 박수에 린색하기로 소문난 기자들속에서 환호와 눈물 그리고 박수가 누가 먼저랄것없이 터져나왔다.》고 썼다. 다른 한 신문은 《서울 롯데호텔 기자쎈터의 분위기는 내내 흥분의 련속이였다. 수뇌분들이 처음 손을 맞잡는 순간 내외신기자들은 〈객관적기록자〉로서의 랭정함을 잃었다. 지어 그들이 눈굽을 훔치는것은 텔레비죤을 보며 울고웃던 일반시민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고 썼다. 일본의 한 언론은 《반세기를 이어 지속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구도가 전환되는 력사적인 순간을 세계가 주목했다.》고 보도하였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아직까지 느껴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절세의 위인상앞에 남녘인민들, 아니 온 세계가 격정을 금치 못했다.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나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통이 크고 호탕하며 정치적지도력이 뛰여나신 위인적풍모와 결단성있고 사리정연한 론리, 크나큰 아량과 포옹력, 한없이 인자하고 소탈하며 례의바르신 품성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끝없는 경모의 정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예지로 빛나는 안광, 봄날처럼 따스한 미소, 속사포처럼 빠르고 거침없는 언변, 움츠러든 가슴이 쭉 펴이게 품어주는 인정미, 바다처럼 넓고 대륙처럼 확 트인 호방한 성격, 풍부한 유모아, 해박한 지식…

남녘민심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출중한 인품에 반하고 숭고한 풍모에 완전히 매혹되였다. 남녘의 이르는 곳마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뜨거운 칭송의 열기로 끓어번지였다. 동서고금의 어느 력사에 경애하는 장군님처럼 온 민족, 온 인류의 마음을 틀어잡고 대번에 끌어당긴 그런 위인이 있었던가.

력사적인 평양상봉이후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풍모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으며 장군님식대화법과 장군님께서 쓰시였던 안경, 입으시였던 옷형태는 물론 《김정일국방위원장님식수표》가 류행되였다. 학생들속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필체를 따라배우는것이 하나의 풍으로 되였다. 그뿐이 아니다. 출판물들에 위대한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과 함께 그이를 소개하는 기사들이 앞을 다투어 실리고 인터네트에 장군님의 위대성을 전하는 글들이 경쟁적으로 올랐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당시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김정일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우리 사회전반에 〈김정일열풍〉을 일으키시였다. 책방들에서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위인상을 전하는 책들이 날개돋친듯 팔리고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에 대한 사회계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고있다.》고 전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온 겨레의 매혹과 흠모의 열기가 얼마나 높은것인가는 당시 외국의 한 평론가가 《남조선민중모두가 김정일장군님의 지지자, 열렬한 옹호자가 될것》이라고 쓴 글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계기로 더욱 뜨거워진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남녘인민들의 열렬한 흠모심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강렬해지고있다. 올해에도 남조선의 각계 통일운동단체들과 인사들은 보수당국의 탄압을 박차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위인흠모의 열기속에 다양하게 기념하고있다.

령도자의 위대성을 실생활을 통하여 절감한 사람들만이 자기의 운명은 물론 민족의 운명까지 다 맡기고 따르게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흠모의 마음은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에 대한 매혹에 기초하고있고 그이를 민족의 태양으로,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불변의 신념으로 굳어진것으로 하여 그 어떤 폭압의 광풍에도 끄떡없다.

해빛이 밝아 어둠이 없듯이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앞길은 언제나 밝고 창창할것이다.

본사기자 복은희

평양상봉의 나날에 — 뜻깊은 —

한없이 겸허하고 례의밝으신분

2000년 6월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일정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과 남측 당국자사이에 두번째 회담이 진행되게 되였다. 원래 그 회담은 남측 당국자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찾아뵙고 진행하도록 계획되여있었다.

그런데 첫번째 회담에 이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몸소 남측 당국자일행이 거처하고있는 백화원영빈관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신다는 련락을 받은 남측 당국자는 너무나 황송하여 미리 현관출입문앞까지 나와 그이께서 오시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도착하시자 남측 당국자는 감격을 금치 못하며 《제가 찾아가려고 하였는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괜찮다고, 김대중대통령은 몸도 불편한데 젊은 사람이 찾아오는게 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함께 회담장으로 향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이 겸허하고 인자하신 모습을 대하는 순간 남측 당국자는 물론 그의 수행원들도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장군님의 숭고한 례의도덕앞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뜨거운 인간애에 매혹되여

평양상봉의 나날 목란관연회때 있은 일이다.

장내의 폭풍같은 박수갈채를 받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측 당국자와 함께 연회장에 들어서시였다.

이윽고 자리에 앉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장내를 둘러보시다가 김대중대통령의 부인이 주락이 아닌 곳에 앉아있는것을 보게 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남측 당국자에게 리산가족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 왜 대통령자신부터 리산가족을 만드는가고, 그래서 리산가족문제에 그리도 관심이 많은 모양이라고 하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러시고는 몸둘바를 몰라하는 대통령의 부인을 주락으로 불러주시였다.

정녕 그 순간은 남측대표단이 례의가 바르시고 사려깊으신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인간애, 한없이 다심한 인정미에 한껏 매혹되는 감동의 순간이였다.

문배술제조업자의 찬탄

력사적인 평양상봉때 남측대표단 성원들은 연회석상에서 위대한 장군님께 남조선에서 첫 손가락에 꼽힌다는 문배술을 정중히 부어올렸다.

이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문배술의 진맛은 주암산의 샘물로 담그었을 때 비로소 알수 있다고, 그래서 예로부터 문배술은 주암산의 샘물로 담그어왔다고 말씀하시였다.

모두가 깜짝 놀랐다. 남조선에서 살고있는 자기들도 문배술의 유래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있었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술의 유래에 대해 그토록 자상히 알고계시였으니 어찌 그렇지 않으랴.

이 사실이 남조선에서 신문들을 통해 크게 보도되자 문배술제조업자 역시 놀라움과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말하였다.

《천하를 굽어살피시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하찮은 사람이 양주하는 문배술의 진맛까지 알고계시니 놀라움을 금할수 없고 저절로 눈물이 나온다. 그분이시야말로 과시 하늘이 낸분이심을 느끼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창창하게 이끌어나가실 그분께 삼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는 통일의 그날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주암산의 샘물로 만든 진품 문배술로 건강축원의 잔을 삼가 올리겠다고 다짐하였다.

본사기자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대한 매혹

자주통일의 불멸의 리정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은 우리 겨레에게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주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할것을 천명한 6.15공동선언은 해내외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지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의 광주에 사는 어느 한 통일운동가는 동료들에게 북남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고 민족공조로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자주통일의 대강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그러자면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을 이룩할것을 밝힌 6.15공동선언을 적극 리행해야 한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을 마련하시여 통일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신 김정일장군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린다.》

남조선의 한 통일운동단체가 주최한 《남북공동선언리행과 민족의 운명》이라는 주제의 연구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는 《오늘 이남민중은 뛰여난 령도적수완과 철석같은 통일의지를 지니신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을 높이 모시여 통일조국의 그날이 앞당겨지고있다는 민족적자긍심에 넘쳐 투쟁하고있다. 그이께서 계시고 자주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이 있는 한 조국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올것이다.》라고 가슴속진정을 터치였다.

부산의 한 주민은 《자주통일의 지름길을 밝힌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적극 살려나간다면 통일은 그만큼 더 빨리 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으며 민족종교협의회의 한 회원은 6.15공동선언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길을 정확히 밝힌 가장 뚜렷한 리정표》라고 하면서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대단결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공동선언을 고수리행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 불타는 의지를 표명하고있다. 최근 남조선의 진보적청년학생단체들이 발표한 결의문들의 내용을 통해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우리 민족끼리〉기치높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결의문에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우리 민족끼리〉기치높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모두다 필승의 신념을 안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자.》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리행으로 자주통일앞당기자》라는 제목의 결의문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조국통일의 강령이자 우리 민족의 소중한 약속이다. 이를 부정하는것은 조국통일을 부정하는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사수, 리행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반도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나가는데서 모두가 주역으로 우뚝 서자!》라고 호소하였다.

김현철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이 다가오고있는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 전진하여온 지난 10년간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우리 민족끼리》리념밑에 온 겨레가 굳게 단결하여 전진하여온 나날은 이 땅에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며 투쟁할 때 조국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철의 진리를 민족성원모두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준 뜻깊은 나날이였다. 그것은 민족을 위하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민족성원들이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따라나설 때 얼마든지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북남공동선언들에서 밝힌 조국통일의 기본리념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며 이것은 철저한 민족자주의 리념, 민족적단합의 리념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리념은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리념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제시하심으로써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자주와 단합만이 우리 민족의 살길이며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과 지혜를 합쳐 나아갈 때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 진리를 깊이 새겨안았다. 하기에 《우리 민족끼리》리념은 애국의 일념에 불타고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해내외 각계각층 겨레의 열렬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북과 남, 해외가 함께 진행한 공동의 통일행사장들마다에는 언제나 《우리 민족끼리》와 그 정신을 담은 구호들이 내걸리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하자는 애국의 호소들로 차넘쳤다. 더우기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6.15공동선언에 담겨진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위대한 장군님의 투철한 자주통일사상과 애국애족의 광폭정치의 발현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그이의 높은 뜻을 따라 이 땅우에 반드시 통일조국을 일떠세울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웠다. 《우리 민족끼리》리념은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뛰여넘어 자주와 통일을 주장하는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았으며 그들의 가슴속에 명실공히 민족공동의 통일리념으로 자리잡았다. 그들속에서는 6.15공동선언이 밝혀준대로 우리 민족끼리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길만이 자주통일의 길이고 민족이 부강번영하는 길이라는것을 확신하는 목소리들이 매일같이 울려나왔다.

얼마전 남조선의 출판물들이 6.15공동선언발표기념일을 앞두고 《〈우리 민족끼리〉리념은 미국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통일을 이룩할것》이라고 주장한것만 보아도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지지기운을 잘 알수 있다.

본사기자 리성호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가고있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통일대강을 지지옹호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진정으로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자주통일사상과 애국애족의 뜻이 어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내세우면서 그것을 기어이 실천하려는 해내외 온 겨레의 신념과 의지, 투쟁열의는 그 어느때보다 높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현장들마다에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하고 그 리행을 악랄하게 거부하면서 북남대결소동에 미쳐날뛰는 보수패당의 시대착오적인 망동에 전면대결전을 선포하는 결사의 의지를 담은 목소리들이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범민련) 남측본부는 6.15공동선언은 겨레모두의 가슴속에 통일의 리정표로,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보검으로 깊이 간직되여있다고 하면서 민족의 성원이라면 누구든지 사상과 정견, 종교, 지역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북남공동선언을 고수, 리행하기 위한 길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련대는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밝혀준 휘황찬란한 미래와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 드높은 포부를 안고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통일련대, 진보련대, 《한총련》을 비롯한 수많은 단체들도 련이어 성명, 론평들을 발표하고 각종 형식의 시위와 집회투쟁을 벌리면서 보수집권세력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낱낱이 폭로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요구해나섰다.

남조선파쑈당국이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각계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개시하자 격분한 인민들은 반통일세력의 파쑈적공세를 단호히 반대해나섰다. 각계단체들은 보수당국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에 나설것을 요구하면서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이 되는 올해에 반6.15세력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공동선언발표기념일을 북과 남, 해외의 공동으로 맞이하며 민중의 념원인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얼마전 남조선에서 있은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남조선인민들은 공동선언을 전면부정해나선 보수집권세력을 반통일세력, 전쟁세력으로 락인하고 반통일대결정책에 대한 총파산을 선고함으로써 민족자주통일대강에 대한 지지옹호, 리행의지를 뚜렷이 과시하였다.

남조선에서 더욱 세차게 고조되고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지지옹호기운은 오늘 우리 겨레의 지향이 무엇이고 시대의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6.15통일시대의 벅찬 현실을 통해 북남선언들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똑똑히 체험한 남조선인민들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통일분자들과의 전면대결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반통일세력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려는 온 겨레의 강렬한 지향과 의지를 절대로 꺾을수 없다.

본사기자

위험천만한 북침전쟁 《공조》 책동

모략적인 함선침몰사건을 계기로 강화되고있는 괴뢰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이 극히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지난 6월 5일 남조선괴뢰당국은 싱가포르에서 미국, 일본과 함께 《국방장관회담》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 여기에서 괴뢰들은 함선침몰사건의 유엔회부와 관련하여 그 무슨 《련대》와 《행동의 일치성보장》을 운운하면서 유엔에서의 토의가 순조롭지 못할 경우 저들끼리 《독자적인 제재》를 포함한 《대응조치》를 취한다는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한편 괴뢰호전광들은 함선침몰사건과 관련한 이른바 《군사적대응》과 《무력시위》를 운운하며 내외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해해상에서 미국과의 대규모적인 《련합대잠수함훈련》이라는것을 강행하려 하고있으며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오트》미싸일부대를 올해안으로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획책하고있다. 이것은 외세와의 정치군사적 《공조》로 조선반도의 대결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며 이 땅에서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보수패당의 책동이 날로 엄중한 지경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이 미일상전과 벌린 《국방장관회담》이라는데서 그 무슨 《행동의 일치성보장》이니, 《독자적인 제재》니 하고 떠들어댄것은 외세의 힘을 빌어 우리에게 그 어떤 《압력》을 가하고 사태를 전쟁도발에로 끌고가려는 매우 위험한 망동이다.

외세의존에 환장한 남조선보수패당은 저들이 미국과 함께 꾸며낸 함선침몰사건을 파렴치하게도 《북의 소행》이라고 고아대면서 그에 따른 《국제적협력》에 대해 입이 닳도록 떠들어댔다. 그 《협력》이라는것이 외세와의 《공조》로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은 낱낱이 드러났다. 함선침몰사건과 관련한 반공화국모략소동에 대한 미국의 《전적인 지지》에 더욱 기세등등해진 괴뢰들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회부한다, 서해해상에서 전쟁연습들을 벌린다 어쩐다 하며 들볶아댄것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역적패당이 이번에 해외에서 미일상전들과 《국방장관회담》이라는것을 벌려놓고 《행동의 일치성보장》과 《독자적인 제재》에 대해 모의한것은 함선침몰사건의 불순한 내막을 폭로단죄하는 내외여론에 도전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을 걷잡을수 없는 폭발국면에로 몰아가려는 책동으로서 절대로 스쳐지날수 없다.

지금 괴뢰군부호전광들이 함선침몰사건과 관련한 《군사적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이미 연기되여 맥이 빠진 미국과의 대규모적인 《련합대잠수함훈련》을 서해해상에서 기어코 벌려놓으려고 발광하고있는 사실과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가담을 꾀하며 《패트리오트》미싸일부대를 들여오려 하고있는것도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면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무력을 증강하여 북침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계획적인 전쟁도발책동이다.

더우기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남조선보수패당이 미, 일과의 《3각군사동맹》구축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는 사실이다.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무력으로 해칠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역적패당은 집권초기부터 랭전시대의 유물로 내외의 강력한 규탄배격을 받은 미국, 일본, 남조선의 《3국조정위원회》를 조작하는 등 《3각군사동맹》형성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번에 괴뢰들이 미국, 일본과 《국방장관회담》이라는것을 벌려놓은것은 함선침몰사건을 구실로 《3각군사동맹》을 완전히 실체화하고 유엔을 통한 대조선압박기도가 물거품이 되는 경우 그것을 발동하여 우리에게 감히 선불질을 해보려는 극히 호전적인 기도의 발로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무력으로 해치려고 미친듯이 날뛰는 리명박패당의 범죄적책동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하지만 괴뢰패당은 심히 오산하고있다. 만일 리명박패당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감히 북침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다지고다진 선군의 위력을 총폭발시켜 침략자들의 아성을 송두리채 짓뭉개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고야말것이다.

불을 즐기는자는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은정철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단호히 규탄한다

총련일군들이 리명박역도패당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규탄하여 5월 31일 담화들을 발표하였다.

오재세 재일본조선상공련합회 상임리사회 리사장은 담화에서 이번 《천안》호침몰사건은 철두철미 남조선집권세력이 꾸며낸 완전한 날조극이며 외세추종, 동족대결을 추구하여온 사대매국정책의 필연적산물이라고 단죄하였다.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조사결과》란 사건발생시간과 지점, 목격자증언이 시시각각 바뀌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로서 이번 사건은 리명박패당이 처음부터 불순한 기도를 가지고 조작해낸것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반공화국모략소동은 동포상공인들의 기업활동에도 큰 난관과 불안을 조성하고있을뿐아니라 재일동포사회에 또다시 대립을 조성시키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천안》호침몰사건을 조작하여 북남관계를 풍지박산내고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 남조선보수패당의 악랄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모략소동을 치솟는 민족적분노로 단호히 규탄한다고 그는 언명하였다.

그는 리명박이 6.15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민족을 배반하며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을 계속한다면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하면서 각계각층의 광범한 동포상공인들이 《우리 민족끼리》기치아래 하나로 뭉쳐 남조선 현 집권자들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을 견결히 반대배격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현대식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중앙상임간사회 간사장은 담화에서 리명박역적패당이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한사코 가로막아오다가 이제는 동족을 향하여 선전포고까지 거리낌없이 감행해나서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는 미국의 지시밑에 《북어뢰공격설》을 조작하고 《전쟁불사》, 《보복》에 대해서까지 줴쳐대고있는 리명박역도와 같은 민족반역자, 전쟁광신자가 또 어디 있겠는가고 단죄하였다.

민족도 통일도 안중에 없이 오직 저들의 살길을 위해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대결과 북침소동에 미쳐날뛰고있는 리명박역적패당의 추악한 반민족적행위를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고 그는 밝혔다.

사회주의조국과 운명을 같이해나갈 결의로 끓어번지고있는 재일조선청년상공인들은 하나로 굳게 뭉쳐 역도패당의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번영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괴뢰호전광들 대규모북침전쟁연습실시를 공표

【평양 6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괴뢰륙군제1군단이 15일과 16일 경기도 고양, 파주일대에서 대규모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공표하였다.

괴뢰호전광들은 그 누구의 《침투》와 《도발》에 대처한 이 북침전쟁연습에 군단산하 전체 병력과 수많은 각종 군사장비들을 동원시키려고 획책하고있다.

리명박역적패당은 날이 갈수록 북남대결을 더욱 고취하며 기어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미쳐날뛰고있다.

반통일적망동을 단죄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이 통일행사를 가로막는 괴뢰패당을 규탄하여 10일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리명박《정부》가 6.15공동선언발표 10돐기념 민족공동행사를 가로막은것도 모자라 각계층 단체들의 기념행사마저 그 무슨 《폭력행사》로 모독하며 불허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돌이켜보면 남조선인민들의 평화적집회때마다 경찰을 내몰아 폭력을 휘두른 장본인은 다름아닌 현 《정부》라고 론평은 단죄하였다.

론평은 당국이 반민족, 반통일책동을 중지하고 6.15공동선언리행을 위한 기념행사를 무조건 보장할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무식쟁이의 쓸개빠진 소리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7일 오스트리아의 윈에서 개막된 국제원자력기구 관리리사회 회의에서 총국장이라고 하는 아마노 유끼야가 우리를 심히 자극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그는 우리 나라가 핵전파방지와 관련한 모든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느니, 2006년 핵시험후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에 따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과 담보협정을 준수하며 그 정형을 기구에 《통지》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쓸개빠진 소리를 줴쳤다. 그는 6자회담참가국들이 조선반도비핵화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6자회담재개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들고나왔다.

사람이 무식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잡소리를 치기마련이다. 보건대 아마노는 해가 동쪽에서 뜨는지, 서쪽에서 뜨는지도 모르는 무식쟁이인것 같다. 그의 넉두리는 사리에 맞지 않는 궤변으로서 어느 하나도 들을 소리가 없다.

아마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것은 이미 알려져있다. 그로 말하면 친미경향이 농후한 일본인으로서 기구총국장 선거초기 발전도상나라들의 반대로 미끄러졌다가 금전외교를 벌려 간신히 당선되였으며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자리에 들어앉자마자 일본이 전후 핵전파방지분야에서 《최대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하면서 임기내에 조선과 이란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제넘은 소리를 줴친자이다. 친미, 대미추종에 환장하여 미국상전의 장단에 맞장구를 치는 이런자의 입에서 바른소리가 나올리 만무하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그에게 따끔히 버릇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핵전파방지와 관련한 그 무슨 《의무》를 리행하며 담보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야말로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가. 우리 나라는 국제원자력기구 성원국도 아니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당사국도 아니다. 더구나 우리 공화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불공정한 《결의》를 인정해본적도 없다.

아마노는 조선반도핵문제의 력사도 모르면서 제나름의 무식한 소리들을 마구 내뱉고있다. 조선반도핵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반세기이상 우리에게 핵위협을 가한데로부터 산생되였다.

미국은 조선반도에 처음으로 핵무기를 끌어들인 장본인이다. 1950년대 후반기 미국은 일본에 배비하였던 핵무기를 남조선으로 옮겨놓았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배비는 부단히 증대되여 1970년대 중엽에는 그 수가 1 000여개를 넘어섰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이곳을 극동최대의 핵무기고로 전변시키면서 대조선핵공갈책동을 일삼고있는 심각한 사태에 대처하여 조선반도의 전지역을 핵무기없는 지대로 만들며 이 지역에서 핵전쟁위험을 종국적으로 가시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기울여왔다.

미국이 대조선위협공갈을 하지 않았더라면 조미사이의 핵문제는 애당초 발생하지도 않았을것이며 조선반도사태가 오늘과 같이 악화되지도 않았을것이다. 미국은 우리 나라를 《악의 축》,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명하고 자주권과 생존권을 엄중히 위협하였다.

우리 나라가 지난 시기 국제원자력기구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한것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적핵리용권리를 향유하기 위한것이였지 결코 그것을 유린당하기 위한것이 아니였다. 우리는 미국의 핵위협이 가증되고 국가의 최고리익과 안전이 엄중히 침해당하는데 대처하여 국제원자력기구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였으며 부득불 자위적핵억제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국제원자력기구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 순간부터 우리 나라는 그 어떤 의무도 지닌것이 없다.

아마노가 이런것도 모르면서 우리의 그 무슨 《의무》리행이요, 담보협정 준수요 뭐요 하는것은 어불성설이며 그따위 황당무계한 론리는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다.

그가 6자회담재개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너스레를 떤것도 가소롭다. 6자회담이 열리지 못하고있는것은 미국과 남조선때문이다. 오바마행정부는 대조선적대시강경정책을 실시하면서 핵문제의 전진을 훼방하였으며 종당에는 남조선괴뢰들을 내세워 반공화국모략극인 《천안》호침몰사건을 조작하고는 그것을 걸어 조선반도비핵화와 6자회담재개과정을 전면차단시켰다.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이라고 하면 조선반도핵문제의 초보적인 개념과 력사, 6자회담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것쯤은 알고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미국이 하는 소리에 덮어놓고 맞장구를 치는 사람이 과연 한개 국제기구를 제대로 운영해나가겠는지 의심스럽다. 아마노가 대미추종자세에서 조선반도핵문제의 본질과 력사를 심히 외곡하면서 미국의 대변자, 꼭두각시로 놀아나며 우리에 대한 압박놀음을 연출하는것은 오히려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으로서의 자기의 체모와 기구의 영상을 깎이우게 할뿐이다. 충고하건대 그가 조선반도핵문제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그 본질과 력사부터 잘 알고 공정한 립장에 서서 처신을 바로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김 종 손

조선 남조선의 심리전에 전면적인 군사적타격으로 대응할것이라고 경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대포고를 여러 나라 통신, 방송, 신문이 보도

【평양 6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대포고 《괴뢰들의 반공화국심리전재개에 전전선에서의 전면적인 군사적타격으로 대응할것이다》를 12일 여러 나라 통신, 방송, 신문이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조선을 반대하는 남조선의 심리전에 전면적인 군사적타격으로 대응할것이라는 포고를 발표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포고는 군사적으로 심리전이 전쟁수행의 기본작전형식의 하나이라고 하면서 조선을 반대하는 심리전수단설치는 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선전포고로 된다고 까밝혔다.

조선의 혁명무력은 이미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이 엄숙히 경고한대로 전전선에서 조선을 반대하는 남조선의 심리전수단들을 혼적도 없이 깨끗이 청산해버리기 위한 전면적인 군사적타격행동에 진입하게 될것이라고 포고는 강조하였다.

포고는 조선을 반대하는 남조선의 심리전재개시도는 6.15공동선언과 그에 기초하여 작성된 북남군사적합의에 대한 로골적인 파기행위이며 조선의 존엄과 국가의 최고리익을 침해하는 특대형도발행위이라고 락인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과 에호 모스크비방송도 조선군부가 조선에 대한 심리전재개를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남조선당국에 경고하였다고 하면서 같은 내용을 전하였다.

미국의 AP통신과 신문 《유에스에이 투데이》, 《뉴욕 타임스》, 《인터내슈널 헤랄드 트리뷴》, CNN방송, 영국의 로이터통신, 오스트랄리아 ABC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마이니찌신붕》, 《도꾜신붕》, 《니홍게이자이신붕》, NHK방송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전전선에서 남조선의 반공화국심리전수단들을 격파하기 위한 전면적인 군사적타격행동에 진입하게 될것이며 그것은 서울의 불바다까지 내다본 무자비한 군사적타격으로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이 자위적핵억제력을 강화하는것은 누구도 막을수 없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인터네트에 글 게재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가 5월 12일 인터네트홈페지 《하나의 조선 네트워크》에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반공화국책동을 폭로하는 글들을 올렸다.

《조미핵대결, 미국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글은 1990년대초 만전쟁에서의 《승리》에 도취된 미국은 그 기세로 곧 조선도 《평정》해버리려고 하였다, 미국이 전쟁의 명분을 세우고 구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들고나온것이 바로 조선의 《핵문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촉하여 《핵의혹》을 떠들면서 조선에 대한 《특별사찰결의》를 조작해냈다. 그리고 남조선에서 최대규모의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방대한 무력과 최신군사기술수단을 이 지역에 증파하였다.

이때 조선에서는 준전시상태의 선포와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라는 폭탄선언이 터져나왔다.

미행정부는 당초의 기도를 일단 포기하고 협상을 통한 타개책을 찾지 않을수 없었다.

결국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게 되였다.

당시 미국의 클린톤대통령은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일**국방위원장께 자기측의 의무를 성실히 리행할것이라는 담보서한까지 보냈었다.

그러나 미국은 자기의 의무리행을 태공하면서 《시간끌기》에로 넘어갔다. 이것은 경수로를 건설하는 흉내나 내면서 조선의 《붕괴》를 유도하는 새로운 전술이였다.

그런데 기껏해서 3년을 넘기지 못한다던 조선은 《붕괴》는커녕 1998년 8월 자기의 첫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리였으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이것은 미행정부를 당황망조케 했다.

2001년 1월에 출현한 부쉬행정부는 《조미기본합의문》을 아예 부정해나섰다. 부쉬는 조선을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면서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조선의 《핵문제》를 또다시 들고나오면서 국제적압박공세를 취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조선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이 자위적핵억제력을 갖추는것을 누구도 막을수 없게 되였다.

미국은 또다시 《시간끌기》에로 나갔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등을 리용하여 조선을 회유하면서 조선에 대한 군사적침공의 기회를 엿보았다.

조선은 미국의 본심을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에 맞서 자기의 주권을 수호하자면 부득불 핵억제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이 조선이 내린 결심이였다.

조선은 자기의 국방공업을 더욱 강화해나갔으며 핵억제력까지 갖추었다.

바로 이것이 조선에 대한 미국의 위협이 가져온 가장 큰 결과물이였다.

과연 미국에 있어서 이제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단 말인가.

지난 조선전쟁시기 변변한 무기가 없이도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을 타승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다.

지금에 와서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조선의 군대와 인민과 맞서는것은 미국의 종말을 불러오는것이나 같을것이다.

조선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제의하였다.

조미핵대결에서 궁지에 빠져있는 미국에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더없는 기회일것이다.

또한 《북남관계개선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의 글은 조선의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은 조선의 평화와 통일뿐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오늘 조선의 북남사이의 관계는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글은 남조선의 극우익보수세력이 6.15공동선언을 전면부정하고 반공화국대결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데 대해 자료적으로 폭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남조선의 보수세력은 과연 새 조선전쟁을 바라는가.

만약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인류가 일찌기 체험해보지 못한 열핵전쟁으로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국제사회가 조선의 북남사이의 관계악화를 방관시할수 없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조선중앙통신】

반이스라엘시위와 집회

▲스웨리예의 스톡홀름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5월 31일 반이스라엘시위가 벌어졌다.

이스라엘해군이 인도주의원조물자를 싣고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로 가던 배들에 사격을 가하여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데 항의하여 일어난 시위들에는 수천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반이스라엘구호들을 웨치며 이스라엘대사관을 향해 행진하면서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을 반인륜적인 행위로 락인하고 그러한 만행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뛰르끼예의 이스딴불시에서 5월 31일 반이스라엘시위가 벌어졌다.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로 가던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법무도한 공격만행에 항의하여 일어난 시위에는 수천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이스라엘령사관앞에서 반이스라엘구호들을 웨치면서 이스라엘의 반인륜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인디아의 스리나가르에서 4일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만행을 규탄하는 항의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수백명의 이슬람교도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원조선단에 대한 군사적공격은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행위의 또 하나의 표현으로 된다고 단죄하였다.

본사기자

반이스라엘시위를 벌리는 필리핀녀성

단평 누구를 원망할것인가

최근 남아프리카국가경찰국장이 자기들은 자국에서 진행되고있는 월드컵경기대회에서 미국팀이 다음단계 경기에 진출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미국팀의 성적이 좋으면 미집권자가 남아프리카에 올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한차례의 《악몽》으로 될것이기때문이라는것이다. 그가 이렇게까지 말하게 된데는 까닭이 있다.

남아프리카는 세계적인 경기대회를 안전하게 치를것을 바라고있다. 하지만 만사람의 눈총을 받는 미국인들을 겨냥한 테로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미국도 월드컵경기대회를 관람하려고 남아프리카에 가는 자기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남아프리카의 곳곳에 자기 나라 선수들을 위한 《대표부》까지 설치하였다.

이번 경기대회의 안전을 책임진 남아프리카국가경찰은 미국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수고까지 더 하고있다. 만일 미집권자가 남아프리카에 오는 경우 그들의 부담과 마음속고충이 몇갑절 커질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그들에게 있어서 미국팀이 다음단계 경기에 진출하는것이 달가울리 만무하다. 그들은 경기대회와 나라의 안전때문에 미국팀이 첫단계 경기에서 제발 패하기를 원하고있는것이다.

미국선수들이 이 사실을 알면 사기가 저조해지고 맥이 풀릴것이다. 하지만 누구를 탓할것도 못된다.

미국이 남들을 못살게 굴며 못된짓만 골라하니 세계의 미움을 사고있으며 따라서 미국사람들이 곁에 있는것조차 바라지 않는것이다. 그리고 미국을 위해 수고를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미국선수들이 누구를 원망해야 하겠는가는 물어보나마나이다.

조 택 범

꾸바와의 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갈 립장 천명

보쯔와나대통령 쎄레쩨 카마이안 카마가 8일 꾸바방문과정에 한 발언에서 이 나라와의 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지난 기간 꾸바정부가 국제주의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보쯔와나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였다.

그는 자기 나라가 앞으로 두 나라사이의 쌍무협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서방의 위협책동을 단죄

이란제1부대통령 모함마드 레자 라히미가 5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위협과 제재책동을 단죄하였다.

그는 최근 미국과 서방이 이란의 진보와 경제발전을 가로막아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고 자기 나라는 이에 단호히 맞서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이란정부와 인민은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발전을 이룩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오늘의 세계

위험한 핵흉계를 품고 있는 중동평화의 《암》

최근 한 미국학자가 이스라엘의 핵문제와 관련한 자료를 발굴하여 영국신문에 공개하였다. 자료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1970년대에 남아프리카에 핵무기를 판매하겠다고 제의한 극비문건들이라고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핵무기생산국일뿐아니라 그 전파를 추구하는 혐의자라는 증거물로 된다.

이스라엘의 야심적인 핵무장화책동은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 이스라엘은 1949년에 비밀리에 핵계획에 착수하였고 원자탄과 수소폭탄제조기술을 얻기 위하여 모지름을 썼다.

이스라엘의 핵무장화책동을 립증해주는 자료들은 얼마든지 있다. 과학자 바누누가 이스라엘의 핵기밀을 폭로한 사실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이스라엘의 남부에 있는 디모나핵쎈터에서 일한바 있는 그는 1986년에 이스라엘의 핵무기시설을 보여주는 사진을 영국신문에 공개하였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핵개발을 비밀리에 다그쳐 200개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였다고 한다. 그후 바누누는 이스라엘의 핵기밀을 폭로한 혐의로 18년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핵무장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되여 위험계선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령토팽창야망에 들떠있는 이스라엘의 야심적인 핵무기생산과 보유는 중동나라들의 자주권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주는 근원의 하나이다. 오늘 세계적인 열점지역의 하나인 중동지역에서는 이스라엘에 의하여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실지로 지난 기간에 이스라엘이 핵미싸일을 저장고에서 꺼내여 발사대에 설치하고 잠수함들에 핵탄두를 탑재한 사건들이 여러번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핵흉계를 품고있는 이스라엘이 핵무기보유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뻐젓이 핵위협책동에 매여달리고있는것이다. 얼마전에도 이스라엘은 이란의 평화적인 핵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또다시 위협하였다.

이스라엘이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무분별한 망동을 부리는것은 미국의 지지비호를 받고있기때문이다. 이번에도 영국신문에 이스라엘의 핵전파흉계에 대한 자료가 발표되여 국제적물의를 일으키고있지만 미국은 찍소리 한마디 안하고 침묵으로 이스라엘을 비호두둔하고있다.

미국의 손탁밑에서 이스라엘이 위험한 핵국가로 자라났다는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미국은 지난 시기 이스라엘의 핵무기개발을 눈감아주고 그것도 모자라 기술적원조까지 제공하였다. 미국은 1960년대 중엽에 고농축우라니움 약 100㎏을 이스라엘에 비밀리에 넘겨주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국신문들이 공개한것이다.

미국과 서방의 묵인, 비호와 적극적인 협력하에 오늘 이스라엘은 많은 핵무기를 가진 위험한 핵대국으로 되였다. 그들은 사거리가 250~2 500㎞인 미싸일들에 여러 종류의 핵무기를 탑재할수 있다고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자기의 핵무기보유에 대해 한번도 인정한적이 없다. 이번에 폭로된 핵무기판매미수사건자료를 놓고서도 이스라엘은 아닌보살하고있다. 이스라엘대통령 페레스는 《1975년에 이스라엘이 핵무기거래문제를 놓고 남아프리카와 협상하였다는 영국신문 〈가디언〉의 주장에는 사실상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시치미를 뗐다. 당시 페레스는 국방상으로서 문제의 핵무기거래의 기본당사자였다. 하지만 그는 이처럼 철면피하게 행동하고있다.

한편 이스라엘국방상은 그보다 한술 더 떠서 자국의 핵정책에 대해 미국이 의심하지 않을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이스라엘이 갈수록 파렴치하게 놀아대고있지만 미국은 꿀먹은 벙어리시늉을 하고있다.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이중기준정책은 세계적인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란대통령은 최근 어느 한 국제회의에서 이스라엘의 핵무기보유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도 자기 나라의 평화적핵계획은 극력 반대해나서고있는 미국과 서방의 그릇된 처사를 부당한 이중기준정책의 표현으로 락인단죄하였다.

아랍국가련맹 총서기는 한 통신과의 회견에서 이란의 핵계획이 군사적목적이라고 인정된것은 없다고 밝히고 그런데 어째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개발은 문제시하지 않는가고 반문하였다. 유엔주재 뽈럭불가담나라 대표들도 서방나라들이 이란의 평화적핵활동은 반대해나서면서도 이스라엘의 핵무기보유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러한 이중기준정책을 버릴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제반 사실은 이스라엘이야말로 위험한 핵야망을 품고 미쳐날뛰면서 중동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핵광신자, 핵전파자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이스라엘은 그 무엇으로써도 저들의 범죄적인 핵흉계를 감출수 없다.

본사기자

후대교육사업에 힘을 넣어

중국에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국제아동절에 즈음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호금도총서기가 《과학을 체험하고 락천적으로 성장하자》라는 주제의 행사에 참가하였다.

중국소년선봉대 제6차 전국대표대회에 참가하는 전체 소년대표들과 국내외의 일부 소년들이 참가한 행사에서 호금도동지는 먼저 당중앙을 대표하여 대회에 참가하는 전체 소년대표들과 전국의 여러 민족소년들에게 명절인사를 보냈다.

이날 그는 전국의 소년선봉대원들에게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리상이 높은 훌륭한 소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진취적인 훌륭한 소년, 품성이 좋고 서로 단합하고 사랑하는 훌륭한 소년, 체력이 튼튼하고 생기발랄한 훌륭한 소년이 될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그는 광범한 소년선봉대 지도원들과 소년사업일군들이 오랜 기간 묵묵히 일하며 사심없이 공헌하고 조국의 후대들을 키우기 위해 많은 심혈과 땀을 바치였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더욱더 분발하여 현시대 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방법을 적극 탐구하며 소년들의 훌륭한 스승, 좋은 벗이 되여 여러 민족소년들이 조국의 대가정속에서 건전하고 락천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중국당과 정부에서는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에 큰 관심을 돌리고있다. 얼마전 중국의 베이징에서 대학생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개선강화할데 관한 전국적인 좌담회가 진행되였다. 여기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리장춘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대학생들은 당과 국가의 귀중한 인재자원이다. 따라서 리상과 신념교양을 핵심으로, 애국주의교양을 중점으로, 사상도덕건설을 기초로 대학생들의 전면적발전에 힘을 넣어야 한다. 대학생들에 대한 사상정치교양사업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그들을 덕, 지, 체, 미를 전면적으로 갖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위업의 합격된 건설자,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움으로써 그들이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데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데 보다 큰 기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좌담회에서는 최근년간 대학생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총화하였다.

대학생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중국공산당이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고있는 문제의 하나이다. 중국공산당에 있어서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사회주의현대화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자면 풍부한 지식과 재능을 소유한 우수한 인재들을 키워내는것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사상적대가 든든한 사회주의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워나가는것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중국공산당에서는 지난 시기 대학생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여왔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기관들이 대학생들속에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교양과 민족정신교양, 공민도덕교양, 자질교양을 깊이있게 벌리며 사회 각 부문의 력량을 동원하여 대학생들이 건전하게 자라나도록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선차적관심을 돌리고있다.

대학생들의 정치사상적자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사회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중국교육부와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중앙위원회, 중화전국학생련합회는 대학생지원자들이 각 성, 자치구, 시들에 나가 사회실천활동기지를 꾸려놓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과학기술보급사업과 법 등에 대한 선전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여러가지 예술공연과 체육활동도 벌리게 하고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대학생지원자들이 자신들을 정신육체적으로 단련하고 나라의 사회경제발전을 다그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도록 하고있다.

이밖에도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들을 통한 교양사업, 사상정치리론과목에 대한 새로운 교수체계수립 등 여러가지 방법과 형식으로 대학생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있다. 결과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중국의 청화대학에서는 최근 몇년동안 현실과 결부하여 개혁과 혁신의 정신으로 사상정치리론과목에 대한 새로운 교수체계를 도입하였다. 이 대학에서는 교재를 통일적으로 편집한 기초우에서 교수정형 및 학생들의 실정과 결부하여 새로운 교수체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이 대학에서는 《사상도덕수양과 법률적기초에 관한 교원참고서》, 《맑스주의기본원리에 대한 전문연구》 등 보조교재들도 출판하여 학생들에게 보급하였다. 이 대학의 사상정치리론과목강의는 학생들속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고 한다.

중국의 각급 공청단조직들이 진행하고있는 대학생골간양성사업에서도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2007년이래 각급 공청단조직들은 대학생골간양성학교를 통하여 전문화, 과학화, 체계화된 양성체계를 초보적으로 갖추고 대학내에서의 사상적지도와 역할을 날로 강화하여왔다.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중앙위원회의 해당 책임일군은 대학생골간들은 대학생들속에서 영향력과 호소력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변화된 시대적배경에 대처하여 신념이 확고한 대학생골간들을 많이 키워내면 대학생들속에서 뚜렷한 사상적기치를 세우고 강력한 모범적 및 안내적역할을 할수 있다고 말하였다. 수십만명에 달하는 대학생골간들이 양성되여 나라의 기둥으로, 미래의 역군으로 자라나고있다.

중국공산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오늘 중국의 새 세대들은 과학적발전관에 기초한 조화로운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믿음직한 인재들로 자라나고있다.

본사기자 전 영 희

실업자수 증대, 경제형편에 비관

◎미국에서 경제위기로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5월 20일 미로동성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5월 15일까지의 지난 1주일동안에 나라에서 새로 등록된 실업자수가 47만 1 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그 전주에 비해 2만 5 000명 증대된것이라고 한다.

◎일본에서 심각한 경제위기로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5월 28일 이 나라 총무성은 조사자료를 발표하여 올해 4월에 전국적으로 실업자수가 356만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명 증대된것이라고 한다.

◎도이췰란드에서 올해 5월에 실업자수가 324만 2 000명에 달하였다.

한편 에스빠냐에서 올해 5월에 실업자수가 406만 6 000여명에 달하였다 한다.

◎유럽인들속에서 경제형편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5월 31일 유럽동맹위원회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유로를 사용하는 동맹성원국들에서 5월에 경제형편에 대한 주민들의 견해를 보여주는 지수가 그 전달보다 2.2점 또 떨어졌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ㄱ-01104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실 321-4328. 편 집 위 원 회